

건축문화 **사랑**

창간 1주년

Vol.012 10. NOV 2010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0.11

012 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1st
 Anniversary

축사

광주시 강운태 시장, 전북 김원주 도지사 외 12인

창간 1주년 기념 좌담회

'건축문화사랑'의 진단과 발전방향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안내, 전시행사, 시민·참여행사, 특별행사

특집 시론

공정한 사회, 공정한 건축, 이상림

건축과 도시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광주, 이명규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광장의 도시, 성당의 도시 '로마' 조용준

설계경기

전남농업기술원 종합연구동 신축 설계공모
 전남대학교 동아시아 교육센터 신축 설계공모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전라남도 한옥박람회

대학소개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자랑스런 건축인

전남대학교故임영배 교수

편집후기

창간 1주년 기념사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하여 더 많은 시·도민사회 속으로 건축문화의 장을 넓혀가도록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곡백과가 알알이 영글어 가는 결실의 계절에 "건축문화사랑" 1주년의 결실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합니다.

호남 지역 건축인의 꿈과 희망을 담아 "건축문화사랑"이라는 제호로 창간호를 내며 모두 함께 축하하고 환영하며 기뻐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문화사랑"호를 통해 지난 1년간 호남지역 건축계의 여러 가지 현안과 건축사의 역할을 홍보하고 이 사회를 위해 건축인들 모두가 감당해야 할 문화적 책임과 건축의 근원적인 이념인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가치와 정신을 담아내는 공론의 장으로 충실히 그 역할을 담당하며 이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전문 저널로 손색이 없는 신문으로 성장했다는데 대하여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하고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시간과 물질을 바치며 헌신한 편집위원 모두에게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문화사랑"호가 앞으로도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하여 더 많은 시·도민사회 속으로 건축문화의 장을 넓혀가도록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작금의 세상문화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끊임없이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시대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 숨 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숨 가쁜 속도의 시대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마음먹고 하루에 한번 하늘한번 쳐다보며 자신의 깊은 내면을 돌아볼 여유한번

짓지 못한 채 하루를 흘러보내는 현대인의 분주한 삶이 이제는 다 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건축인들이 건축계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당 시대의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유무형의 총체적 표현의 산물인 건축문화 또한 가고 있는 방향이 바르고 곧게 가고 있는 지를 점검하지 못하고 문화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토록 빠른 속도의 시대에 "건축문화사랑"호가 진정 이 시대 건축문화의 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화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경쟁력 있는 건축의 지역성을 발굴하고 대중성과 사회성을 폭 넓게 수용하여 창조도시와 친환경 미래의 건축문화를 열어 가는 소통의 통로가 되어 건축인 모두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지키는 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또 다른 출발선상에서 더 큰 세상을 향해 달을 올린 "건축문화사랑"호의 출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건축인과 건축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결실의 풍요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발행인



신정철 회장
광주건축사회



김강수 회장
전남건축사회



이성엽 회장
전북건축사회

축사

시민과 건축인의 바람에 부응하는 신문으로 성장하길...



강운태 회장
광주광역시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의 '건축문화사랑' 창간 1주년을 145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아시아문화허브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에 걸맞은 아름다운 도시를 꾸미며 건축문화 창달에 헌신해 오신 시(市)건축사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은 인류와 태동과 함께 호흡하며 발전해 왔고 인류는 건축을 통하여 도시를 형성하고 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건축은 한 시대의 문화적 기념비'라는 말처럼 이제 건축문화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예술과 생활, 그리고 과학기술의 총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건축물이 곧 문화'라는 인식하에 시민의 생활과 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후손에게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겨 줄 건축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디자인중심의 친환경도시를 조성해 도시의 품격과 브랜드가치를 높이며 전국 최초로 건축디자인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해 창조도시 광주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담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사랑은 지난 1년간 광주·전남·전북 지역사회에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건축문화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름답고 창조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건축인 여러분의 열정이 건축을 우리의 소중한 삶의 공간에서 생활예술로 빠르게 정착시키고 우리 고유의 문화자산에 새로운 건축문화를 결합시켜 창조도시 광주의 건실한 기틀을 세워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시가 디자인 중심의 매력적인 건축물을 토대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명품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건축인 가족 여러분의 큰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우프록 건축문화사랑이 시민과 건축인의 바람에 부응하여 신뢰와 사랑을 받는 신문으로 쏙쏙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건축인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윤봉근 회장
광주광역시의회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의 '건축문화사랑'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헌신해 오신 광주 전남 전북 건축사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은 한 나라의 경제력과 생활상 그리고 문화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것대이자 문명의 상징입니다. 이런 점에서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절감형 건축설계가 최우선 명제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지역 건축물이 예술적 감각을 갖추는 것은 물론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건축문화사랑'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면서,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표 도지사
전라북도

건축사 여러분의 꿈의 크기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건축문화사랑' 창간 1주년을 전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전북·광주·전남 건축사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문화사랑'은 지난 1년간 건축·도시문화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문화 창달과 도시·건축의 품격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공간 창출과 건축문화 진흥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이 갈수록 절실해지는 요즘, 건축사 여러분의 역할과 기능 또한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건축가이자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지오포티'는 자신의名著 '건축예찬'에서 "건물은 삶을 담는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속처럼 포근하고 편안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가족들이 오손도손 대화하며 꿈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은 꿈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크면 클수록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도 커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건축문화사랑'이 호남지역 건축문화를 선도하며 건축사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가꿔 나가는 구심체로 성장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건축문화사랑'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건축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문화 수준과 도시의 경쟁력을 올려 주시기를...



김호서 회장
전라북도의회

'건축문화사랑'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직원과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회원 및 독자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양적 하드웨어보다는 질적 소프트웨어, 기능보다는 가치와 창의가 더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21세기 기술강국, 문화강국을 지향하는 국가들은 이미 90년대부터 삶의 공간에 대해서도 국가적 애잔을 설정하여 아름다운 건축물, 문화적 감수성이 풍부한 건축물로 국가의 도시의 이미지를 높여 왔습니다.

우리 광주·전남·전북 지역은 세계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한옥 등 고유의 건축문화를 많이 간직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건축사 여러분들께서 창의성과 열정을 발휘하여 무한경쟁의 건축시장에서 국가의 건축문화 수준과 도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간 1주년을 맞은 건축문화사랑이 건축사 여러분들의 소통의 창구가 되고, 일반 국민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아름답고 튼튼한 신문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집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과 도시를 위한 진실한 건축계 길잡이 역할을...

벌써 '건축문화사랑'을 창간한지 1주년이 되었다니 놀랍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잘 이끌어오고 있는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전남건축사회 김강수 회장·전북건축사회 이상엽 회장과 편집인 박홍근 건축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건축문화시대에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우리 건축사들의 노력과 더불어 건축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국민의 의식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건축문화사랑'의 발행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적 가능성과 희망을 심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건축문화사랑'은 지역의 건축문화를 대변하며 건축인들의 노력과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건축계 중요한 이슈들을 조명하면서 공론의 장을 제공해 왔습니다. 건축문화 사랑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회원들간의 소통과 더불어 국민들이 보다 쉽게 건축을 사랑하고 건축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며, 건축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축문화사랑'이 이러한 특색을 최대한 살려 호남건축의 참다운 가치를 바로 알리는데 주력하며, 더욱 지평을 넓혀 언제나 건축과 도시를 위한 진실한 건축계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계에서 건축사들이 올바르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언론의 계몽적 사명을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더 큰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황정복 회장
대한여성건축사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전과 성취에 큰 박수를 ...

건축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걱정과 수고로 창간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을 문화예술로 바르게 인식하고 건축사와 건축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창작의 밑거름이 됨으로써 건축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신문으로서의 성격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축문화사랑신문의 도전과 성취에 큰 박수를 보내며 대한민국 일천여 여성건축사들의 마음을 모아 건축문화사랑신문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영수 회장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사의 지위가 높아지도록 시대적 소명을 다해 주길...

건축문화사랑'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년 전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 창간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건한 생명력을 유지해온 '건축문화사랑'에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건축물을 지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역할에 '건축문화사랑'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편집기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건축사의 책임을 고취시켜 건축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건축사의 지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대적 소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회장
광주건축사협회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개발시대에서 재생시대로 성장중심에서 가치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수용은 곧 좋은 관계성을 만듭니다. 인간과 자연, 건축과 타 장르와의 관계성 또한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풍요롭고 멋진 삶을 살아가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마음속으로만 품어왔던 우리 '건축문화사랑'의 탄생을 가장 먼저 반겼고 너무나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굳건하게 지난 1년을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슴 깊이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건축문화사랑' 신문을 통해서 장르를 넘나드는 멋진 관계성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전득엽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아름다운 건축공간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길...

우선 '건축문화사랑'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건축인들의 작품과 일상적 삶을 소개하고 상호간에 정보교환의 장이 되어 왔던 '건축문화사랑'이 이젠 여전한 모습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향 전라도지방에 격조 높은 문화신문으로 국민들에게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아름다운 건축공간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가득차고 품격을 갖춘 신문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최규철 회장
광주여중연합회

건축문화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이 지역 건축문화 창달의 산실이자 건축사 회원 여러분의 화합공간인 건축문화사랑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건축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건축의 문화적 중요성을 알려 다양한 여론 대안과 정책 제시로 승화시켜 우리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광주 전남 전북 건축사회 회원 여러분께서 이 지역 건축문화에 대한 구심점 역할은 물론, 건축문화사랑 신문에 대한 위상 제고와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호직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회

아름다운 건축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해 주시길...

안녕하십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장 장호직입니다. '건축문화사랑'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건축문화사랑'은 건축인과 일반인들에게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제고와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건축분야 전문신문으로서 차별화 된 건축정보를 통해 지역 건설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 주므로써 구독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신속 정확한 건축정보제공과 다양한 건설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을 위한 신문으로 이 지역의 아름다운 건축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해 주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건축문화사랑'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지역민의 사랑을 듬뿍받는 신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윤춘주 회장
부업연석회

소통의 문화를 확산하는 시발점이 되길...

건축문화사랑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매달 소식지를 열어볼 때면 이 번 달은 어떤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축물을 보게 될지 마음이 설렘니다. 이 밖에도 지역 건설업계의 동향이나 쟁점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건축사님들의 생생한 현장을 보면서 미래의 내 건물도 상상해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소식지가 외관을 화려하게 하지 않고 실속있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축문화를 알리는 건축문화사랑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서 소통이 부재하다는 이 시대에 실용적인 소통의 문화를 확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윤현석 이사
광주일보

건축이라는 분야를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문화사랑' 발행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건축문화사랑'이 건축 분야 전문가들과 지역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었다는 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건축이라는 분야를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지역의 건축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문화사랑'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기하고 산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일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형록 대표이사
연석기초이엔씨

건축인들을 뛰어넘어 시·도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길...

건축문화사랑 창간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해지는 건축문화사랑을 통해 건축의 전문적인 내용부터 대학들 소식까지 풍성한 내용과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어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나, 호남 출신(보성인) 저로서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기대를 갖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문화사랑이 건축인들을 뛰어 넘어 일반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받고 더욱 발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사사무소
우성건축(주)

건축사 김희현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1-33
TEL. 062) 369-0544
FAX. 062) 368-0544
http://www.wsarchi.co.kr

창간 1주년 기념 좌담회 '건축문화사랑'의 진단과 발전방향

대중성과 시사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건축문화사랑'을 펴내기 시작한지 어느덧 1주년이 되었다. '건축문화사랑'의 발행목적은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있으며, 건축인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독자층으로 삼아 매월 발행하였다.

지난 1년, '건축문화사랑'은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 다소 거창하지만 확실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한 열정을 담아내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러나 발행에 참여한 기자나 편집위원들이 건축분야에서는 전문가였지만, 정기간행물분야에서는 초보자에 불과하다보니 시행착오도 있었고,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많다. 그래서 때로는 찬사도 받았고, 때로는 질책도 받았다.

그렇게 '건축문화사랑'은 첫돌을 맞았다. 이에 본 지에서는 지난 1년을 진단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창간 1주년 기념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좌담회에는 건축계를 비롯한 언론 및 관계기관 인사들을 초청하였으며, 박홍근 편집장의 사회로 초청 인사들의 의견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기자 및 편집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좌담회는 '건축문화사랑'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열기로 가득했다. 사뭇 진지했던 분위기를 지면으로 옮겨본다.

더불어 좌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의견 주실 곳 : E-mail_ksk830710@hanmail.net
Tel_062-521-0025~6, 팩스용 기자

주 제	'건축문화사랑'의 향후 발전방향
	곽규호(전남매일 기자)
초 청	류영국(지오메이트 대표)
인 사	박호재(광주문화재단 설립준비 위원)
	윤대현(광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창울(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신정철(발행인, 광주건축사회 회장)
	박홍근(편집인, 광주건축사회 부회장)
참석자	심상봉 부회장과 광주건축사회 회원
	서재형 외 기자 및 편집위원
	이훈희 외 대학기자
일 시	2010년 10월 15일(금)
장 소	금수장 아리랑하우스

※ 좌담회는 박홍근 편집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편익상 발언자의 직책과 존칭을 생략하고 성명만 기입하였다.

사회자 _ '건축문화사랑' 창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견을 듣기 위해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지난 200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창간 후 1년 동안 발행된 본지에 대해 개략적인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호 _ 건축문화사랑 창간호부터 최근 신문까지의 내용을 본 바, 건축문화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성을 뚜렷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론이라는 지면을 통해 잘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문이라기 보단 손색없는 건축전문 잡지로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시사성과 대중성에 대해서는 보완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은 대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사의 내용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대중적이었는가를 돌아보며, 향후 신문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대중성 부분을 확실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열린 건축문화사랑 창간 1주년 기념 좌담회

신문이라기보다는 건축전문 잡지로 평가

류영국 _ '건축문화사랑'이라는 제호로 발행되는 신문을 보면 "예쁘다. 디자인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칠 뿐 지면을 바로 열어보고 싶고, 읽어보고 싶을 만큼 시선을 끄는 뉴스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신문은 비판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하는 매체입니다. 비판이나 정보 등 궁극하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부족한 건축문화사랑은 신문이라기 보단 잡지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특색 있는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기비전이 없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박호재 _ 신문이라는 매체가 대중에 가까이 가려면 시사적인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저널리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건축문화사랑'은 건축전문지로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널리즘 성격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먼저 편집위원들이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예컨대 건축, 공간, 도시, 환경 그리고 전원생활 등까지 독자층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축문화와 관련한 이슈를 공격적이며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문화사랑'이 건축문화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미나, 포럼, 교육 등 시민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발행 간격이 넓은 월간지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쉽고, 자주 접근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나 디지털 공간을 활용하여 상

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되어야 합니다.

윤대현 _ 늦은 감이 없지만, 이 지역에서 건축 전문 매체가 태동하여 지난 1년 동안 기반을 다져왔다는 점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다른 전문지와는 다르게 제호에 '사랑'이라는 따뜻한 의미를 담아 대중과 가까이 하고자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비판 없이 건축계의 형상만을 기록했던 점과 그마저도 누락된 것이 적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선도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 관련하여 시사성 있는 기사를 다루고 관심을 아취화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신문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창울 _ 먼저 '건축문화사랑'이 신문인가 월간잡지인가를 고민해봤습니다. 월 2회 이상은 발행되어야 비로소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한번쯤 검토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담아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건축문화사랑'은 건축문화의 격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과 도시에 대한 신학관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에 관한 여론을 선도하기에는 아직은 미흡

사회자 _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건축문화사랑'이 건축 관련 신문으로서 전문성 확보뿐만 아니라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호 _ 우선 전문성에 그치지 않고 대중성과 시사성까지를 16페이지 분량의 월간지에 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번 나오는 신문에 시사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양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발행 일수를 늘릴 수 없다면, 지면을 늘리거나, 내용을 함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이나 다른 계층의 전문가에게 되도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입니다. 이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_ 류영국 박사께서는 가치 있고 매력적인 뉴스를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국 _ 월간의 속성과 가치 있는 뉴스를 어떻게

첫째, 건축사들이 도전적이고 문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사회가 그렇게 뛰어야 '건축문화사랑'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건축문화사랑'에 대한 자발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독자들에게 새롭고 창조적인 내용을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편집에 대한 재량권이 있어야 합니다.

결합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상설 계와 같은 경우는 수상작을 단순히 게재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지역적 상황이나 심사과정 또는 완 공될 경우의 효과 등을 생명력 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1주년을 기념하여 100대 뉴스를 선정 하고 설계, 구조, 시공 등 건축전문가의 시각으로 멘 트를 달아 주면 대중성이나 전문성도 부각되고 색다 른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_ 독자 확보 및 일반 시민의 참여도와 소통 의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호재 _ 건축문화사랑을 건축에 관한 여론을 조성 하고 건축인들의 주장을 반영하는 정치적인 매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 적 이슈를 제시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체의 1면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편집형식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 신문인 '건축문화신문'의 경우, 사전에 4~5명씩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합니다. '건축문화사 랑'의 경우도 고정적으로 집필할 수 있는 인력풀의 구 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곽규호 _ 시사성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제 기를 한다면, 발행의 모체인 건축사회가 시사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건축문화사랑도 시사성을 띄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기사들이 건축분야에 너무 한정되어 있고, 시사성보다는 관련 학계의 글을 게재하는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용으로만 본다면 기사가 공격적이지도 못하고 도전적 이지 못하며 문제제기에는 대단히 관용적이었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건축사들이 도전적이고 문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사회가 그렇게 뛰어야 건축문화사랑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둘째, 건축문화사랑에 대한 자발성과 독립성

렇게 된다면 고정적인 독자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건축문화 포럼이나 사랑의 집짓기 봉사 등 지면 외적인 부분에서 독자를 확보하는 방안도 생 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태호 (본지 건축사기자/편집위원) _ 건축전문지인 건축문화사랑은 일반적인 언론매체와는 차별성을 띄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쉽지는 않겠지만 독자 층을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소리 를 경청하여야 하고, 건축계 내부에 대한 자성의 목소 리를 높여야 하며, 건축에 관한 상식까지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_ 다음은 건축문화사랑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_ 건축사의 본업은 성과물을 통해 시민들에 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시를 꾸미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고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신문에 게 재하여 건축사가 또는 일반 시민들이 모두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축문화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계 전체의 사회성을 키우는데 앞장서기를

윤대환 _ 건축문화사랑이 지향하는 소통을 위해서 는 현실적인 타겟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을 타겟으로 삼았다면 그들의 소통을 위해 전문가들을 이야기를 쉽게 해석하여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 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일례로 회원탈퇴의 경 우 신진 건축사나 교수 및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다 루게 되면 이 또한 신규(新舊)가 소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재 _ 앞으로 건축문화사랑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마케팅은 네트워크 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각종 시민사회단체 나 건축문화관련 단체와 교류 및 공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통을 위한 길을 가는 매체로 성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류영국 _ 향후 설정되어야 할 건축문화사랑의 첫 번째 콘셉트는 건축의 지평을 여는 정보의 광장이 되어 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정보, 성공사 례, 신규 사업 분야, 각종 건축통계, 새로운 재료나 공 법에 대한 정보 등이 담겨져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는 지역건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나 가야 합니다. 즉, 지역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는 건축인들의 연계를 강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매체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건축문화화를 위한 캠페 인도 하고, 시민과 건축인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며,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건축투어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건축문화사랑은 건축계 전체 의 사회성을 키워주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건축 사용자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곽규호 _ 독자층을 크게 건축계, 행정 및 교육계, 시 민 등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잘 지어진 건축물 또는 도시, 환경, 문화 등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나 관계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 건축물속 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건축사용자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_ 오늘 좌담회에 참여하신 패널들의 지적과 대안제시 등을 숙지하여 건축문화사랑이 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건축사들의 권익을 창출하는데 방패 역할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창 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기사가 공격적이지 못하고 도전적이지 못하며 문제제기에는 대단히 관용적이다”

곽규호 기자

“시사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1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 해 보아야...”

윤대환 교수



“건축인들의 연계를 강화하는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올바른 건축문화화를 위한 캠페인, 교육 등의 프로그램 필요”

류영국 대표

“건축과 도시에 대한 산·학·관·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소통 의 장이 되어야...”

이창용 부회장



“신문이라는 매체가 대중에 가까이 가려 면 시사적인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저널리즘 성격을 가져야”

박호재 위원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건축사들의 권익을 창출하는데 방패역할 뿐만 아니라 창 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박홍근 편집인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문은 1면에 제일 중요한 기사를 이슈화하여 게재하고 있고, 편집형식 도 날로 자유스러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사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절실

윤대환 _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시사성입 니다. 현재는 1면을 디자인개념의 화보로 장식하고 있 는데, 시사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1면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시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 사를 쉽게 풀어쓰고, 가능하면 많이 배포하며, 인 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도시 중심의 기사 도 좋지만 중소도시나 농어촌 등 하위 행정단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는 조직과 자금의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집필진 확보 측면에서라도 다른 분야 전문가 집단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창용 _ 신문이라면 적어도 월 2회 즉, 격주 발행 은 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글보다는 시각적인 이미 지로 표현하는 것이 시민과의 소통을 쉽게 하므로 건축디자인의 장점을 살려서 편집하는 것도 좋을 것 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속한 발행을 위해서는 집필 진 구성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대한건축사협

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독자들에게 새롭고 창 조적인 내용을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편집 에 대한 재량권이 있어야 합니다. 신문에 대한 편집권 이 독립되어 자유롭게 이뤄져야만 더 나은 신문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호재 _ 신문 내용의 상당부분이 건축사회와 관련 된 것을 보고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은 건축사회의 기 관지쯤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문화사랑이 지향하는 '시민과의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출자는 건축사회에서 하였지만 편집권은 확실히 보장 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자체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문화사랑은 시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모든 건축 인들의 권익을 위한 신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직과 자금 및 편집권 독립이 발전의 핵심

이창용 _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면 대중화는 곤란합 니다. 따라서 신문지면을 구성할 때 반드시 시민 또는 비전문가들을 얼마만큼 동참시켜 공감대를 형성할 것 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편집위원님들의 창조적 아 이디어를 기대해 봅니다.

사회자 _ 표지에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매체 활용 을 통한 소통의 방법, 인력풀 구성, 지역성, 지속성 그 리고 재정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언을 해 주셨 습니다. 이번에는 좌담회를 지켜보신 분들의 의견이 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심상봉 (광주건축사회 부회장) _ 건축문화사랑이 힘 을 갖기 위해서는 건축에 대한 비평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비판이 비중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2010년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품전

광주광역시 건축상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부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을 설계한 건축사와 시공사 등을 선정·시상 제도로 지금까지 총 1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올해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작품을 모친한 결과 총 13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대학교수, 언론인,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금상1, 은상2, 동상3 등 6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하였다. 이번 문화제 기간동안 건축상 수상작들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금 상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설 계 자 : (주)건축사사무소 도시인 / 한대진
시 공 사 : (주)대광건설 건축주 : 광주광역시청
대지위치 : 광주 동구 서석동 47-1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6,282.57m²



은 상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 계 자 :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한남수
시 공 사 : 남양건설(주) 건축주 : 광주광역시청
대지위치 : 광주 남구 구동 12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14,083.32m²



은 상 김치종합센터

설 계 자 :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 조성호
시 공 사 : (주)남광건설 건축주 : 광주광역시청
대지위치 : 광주 남구 입암동 674 외1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8,782.61m²



동 상 TURTLE HOUSE

설 계 자 : 한샘 건축사사무소 / 최경양
시 공 사 : (주)한샘종합토건 건축주 : 최경양
대지위치 : 광주 남구 노대동 757
용 도 : 단독주택 연면적: 256.88m²



동 상 상무 힐스테이트

설 계 자 : (주)다인 건축사사무소 / 이범국
시 공 사 : 현대건설(주) 건축주 : (주)문주디엔씨
대지위치 : 광주 서구 쌍촌동 364
용 도 : 공동주택 연면적: 81,903.84m²



동 상 광산미래이동병원

설 계 자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스페이스 / 오철영
시 공 사 : 명도건설(주) 건축주 : (주)페드엠앤드에스
대지위치 : 광산구 운남동 456-112
용 도 : 의료시설 연면적: 5,767.97m²

광주광역시와 주최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11월 4일(목)부터 11월 7일(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 45,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타지역에서도 수많은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회복·어울림'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건축·도시문화제가 문화도시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풍요로운 광주, 살기 좋은 광주, 세계 속의 건축문화 도시 광주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11월 3일(수)		11월 4일(목) ~ 11월 7일(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4회 한중일 건축사업의회 개최	문화제 개막식	전시행사	시민건축투어	시민·학생 참여이벤트	특별행사	
13시,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	4일(목)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실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품전	4일(목)~6일(토) 14시~17시 출발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건축 도시 사진 공모전	아름다운 공동주택 전시회	이탈리아 프리올리 모자이크 학교 광주 워크샵 작품 전시회
		독일 건축전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 전시회	친환경 건축 디자인 공모전 입상작품 전시회
건축인의 밤		광주·후쿠오카 건축교류전	건축문화 심포지엄	광주건축 도시그림 그리기 대회	장애없는 세상 만들기	경관 취약지 개선 사업자료 전시회
		대학생 우수 건축작품전			초청강연 3 5일(금) 15시 2층 세미나실 승효상 건축사 / 명과 건축	디자인 캠프 결과물 전시회
18시,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						

광주·후쿠오카 건축교류전



광주건축사회는 JIA 후쿠오카회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양국간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건축교류전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일교류 10년사가 담긴 '교류는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올해 10월 경에는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무원, 교수 건축사 등 30여명이 후쿠오카 건축교류전이 열리는 일본건축가협회 전국대회에 참석했다.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6월부터 교류전 작품 출품을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출품작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총 20여 작품 이상이 출품되었다. 이 작품들은 일본건축가협회 전국대회에 전시되었으며, 일본 건축계에 뛰어난 설계작품이라는 호평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번 문화제 기간 동안 광주·도시 건축교류전에 광주 건축사들이 출품한 작품과 JIA 후쿠오카회 건축사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어서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독일 건축전



해외 건축문화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한 이번 독일 건축전은 독일 건축문화원 선정 건축물 50점의 사진 판넬을 전시한다. 독일 북서부지방의 우수작품이 전시되며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경부터 독일 건축문화원과 접촉하여 이를 성사시켰다.

이번 전시는 독일의 건축문화와 비교해보고 건축문화의 다양성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한국의 건축문화의 정체성 파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독일의 건축문화는 어떻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구축되었는지를 알아보고 한국 건축문화의 효율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작년 제6회 문화제에서는 프랑스 문화진흥원 해외 건축전이 열려 방문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대학생 우수 건축작품전



해외 건축문화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한 이번 독일 건축전은 독일 건축문화원 선정 건축물 50점의 사진 판넬을 전시한다. 독일 북서부지방의 우수작품이 전시되며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경부터 독일 건축문화원과 접촉하여 이를 성사시켰다. 이번 전시는 독일의 건축문화와 비교해보고 건축문화의 다양성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한국의 건축문화의 정체성 파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독일의 건축문화는 어떻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구축되었는지를 알아보고 한국 건축문화의 효율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작년 제6회 문화제에서는 프랑스 문화진흥원 해외 건축전이 열려 방문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앞서 작년 제6회 문화제에서는 프랑스 문화진흥원 해외 건축전이 열려 방문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건축문화 사랑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 천득염

의원 임동

(사)광주한남건축학회

회장 전남지

의원 지희

(사)한국건축가협회

회장 강남구

의원 구희



건축·사진 공모전 작품 전시

시민·학생 참여 프로그램으로 건축·사진 공모전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지난 10월 23일 입상작을 발표하였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아름다운 도시 경관(건축물+구조물, 조경+골목길)이란 내용으로 총 100여 점이 넘는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이중 최우수상에 남영욱 출품자의 '어울림'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김애선 출품자의 '동경무역센터', 김용주 출품자의 '공간과 터'가 선정되었다. 이외에 장려상은 이해욱 출품자의 '건축사이를 거닐다' 외 3작품이 선정, 입선은 문성현 출품자의 '과거의 흔적' 외 23작품이 선정되었다. 그 어느 해 보다 뛰어난 내용으로 심사위원들을 고뇌하게 만든 사진 작품이 문화제 행사기간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실에서 전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란다.



최우수상 남영욱 / 어울림



우수상 김애선/동경무역센터



우수상 공간과 터

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 작품 전시

건축·도시 사진 공모전과 함께 진행된 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가 지난 10월 15일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생활환경의 중요한 요소인 건축물, 구조물, 조경, 골목길에 대한 미적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대회를 알리는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총 500여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번 그림그리기 대회의 초등부 최우수상은 박미라(불선중 3) 학생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초등부 고학년 최우수상은 박영서(선창초 4) 학생 작품이 선정, 초등부 저학년 최우수상은 정재은(마치초 2) 학생 작품이 선정, 유치부 금상에는 홍지은 어린이와 하현선 어린이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6일(토) 14시에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면 입상작은 문화제 기간 동안 전시된다.



유치부 금상 홍지은



중등부 최고상 박미라



초등부(고) 최고상 박영서



초등부(저) 최고상 정재은



유치부 금상 하현선

건축 민원상담실 운영

제5회 문화제부터 여성건축사들이 주축이 되어 무료 건축상담 코너를 개설하였다.

이번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은 문화제 기간동안 10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하며 시민들의 건축에 관한 궁금증을 건축사가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 줌으로써 건축 관련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여 광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운영한다.



건축 민원상담실에 방문하면 건축법규, 건축설계, 시공 및 민원사항 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다.

광주 건축 MAP 발간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서는 건축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제고와 광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건축지도를 발간하였다.

올해는 한국어판 2,000부와 일본어판 1,000부 발간, 총 3,000부를 10월 중 발간한다.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간중예 일반인들에게 일부 배포할 계획이다.





2010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시민건축투어

일 시 : 2010. 11. 4 (목) ~ 11. 6 (토) 매일 14:00
 견학시간 : 오후 2시 ~ 오후 5시
 접수처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Tel. 062)521-0025~6
 Fax. 062)528-0026
 출발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11.4(목) 14:00 ~ 17:00
 벨기념관-빛고을문화회관-빛고을노인건강타운-교싸움놀이 영상체험관
11.5(금) 14:00 ~ 17:00
 세계광엑스포주재전시관-빛고을국악전수관-GS빌딩-시창자미디어센터
11.6(토) 14:00 ~ 17:00
 남도향토음식박물관-광주시립미술관-광주디자인센터-테크노파크

건축문화 심포지엄 초청강연 세 번째 강연 개최

문화제 행사일환인 건축문화 심포지엄 세 번째 강연이 11월 5일(금) 15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초청강연은 2011년 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인 송효상 건축사를 초청하여 '땅과 건축'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건축문화 심포지엄은 이전과 달리 연간 총 3회 강연을 부산 개최함에 따라 문화제 기간 중에는 송효상 건축사의 강연이 단독으로 진행되며, 앞서 1회 강연은 지난 6월 23일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토미이 마사노리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되었으며 2회 강연은 9월 7일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우신구 교수의 강연으로 개최되었다.



일 시 : 2010. 6. 23(수) 16:00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
 강 사 : 토미이 마사노리 교수 (한양대 건축학부)
 주 제 : 일본의 현대건축



일 시 : 2010. 9. 7(화) 15:00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
 강 사 : 우신구 교수 (부산대 건축학과)
 주 제 : 부산 광복동 거리만들기



일 시 : 2010. 11. 5(금) 15:00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
 강 사 : 송효상 건축사 (2011 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주 제 : 땅과 건축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 전시

광주광역시와 주최하고 (사)나무심는 건축인이 주관하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 발표가 지난 19일 발표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은 행복한 창조도시에 걸맞은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경관 자원을 보전하고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공부문에는 '광주예술고등학교'가 아파트부분은 '각화동 주공아파트', 민간부분은 '학동 한독디자인센터'가 선정되었으며 당선된 건축주에게는 광주시장상이 수여되고, 시설물에는 기념동패가 부착된다. 이번 공간상 수상 작품은 문화제 기간 중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시된다.



공공부문 : 광주 북구 운암동 광주예술고등학교



아파트부분 : 광주 북구 각화동 주공아파트



민간부분 : 광주 동구 학동 한독디자인센터

전야행사로 진행되는 "건축인의 밤"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전야행사로 진행되는 '건축인의 밤'은 광주건축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단합을 도모하고 광주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건축인의 밤은 문화제 개막 전날인 3일 18시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되며 광



주시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교수, 광주건축사, 한중일 건축사, 전국 시도건축사회장, 공무원 등 200여명이 넘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총 3부로 나뉘져 열리는 이번 행사는 1부 기념마당 행사인 클래식 연주,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

사회 신정철 회장의 개회선언,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강남구 회장의 개회사, 축사, 광주광역시건축상 시상, 자랑스런 건축인 추대 순으로 진행되며, 2부 축제마당에서는 테너 오두영과 소프라노 오은혜의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3부인 친교마당에서 기념케이크 절단과 건배제의, 만찬 순을 끝으로 '2010건축인의 밤' 행사가 대 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사)건축단체연합회 김재성 사무국장은 "올해 건축인의 밤은 이전과 달리 제14회 한중일 건축사협의회가 광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해외 인사들이 건축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국제적인 건축인의 밤' 행사로 개최될 것이다"고 밝혔다.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전시



'장애없는 세상만들기'는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 공공봉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행하는 프로젝트로 20년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장애 없는 세상 만들기'를 시작하였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연령대 그리고 서로 다른 여건의 대중들과 교류하며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도시, 건축 공간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생들 비롯한 교수, 건축사, 건설사, 광주광역시 등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번 문화제 기간중에 대학생들의 인본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장애인 및 노약자들에게 편리한 개선시설 사진 판넬 및 모형 전시를 할 예정이다. (사)한국 건축가협회 광주지회 이순미 공공봉사위원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어 물리적, 심리적으로 장애없는 세상을 만들어 진정한 인권의 도시 광주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공동주택 전시회



향후 건설될 공동주택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아름다운 공동주택 전시회가 특별행사 일환으로 문화제 기간 중 열린다. 광주광역시가 주관하는 이번 공동주택 전시회는 공동주택의 역사와 타지역 우수공동주택 판넬 전시, 광주지역 우수공동주택 판넬 전시 등으로 구성되어지며 총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광주회원 작품 중 (주)나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의 '학동3구역,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주)현대 건축사무소의 '수원 호반 아파트'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의 '봉선동 남양 주상복합 신축공사' 등이 전시될 계획이어서 광주 시민들의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남승진 사무총장은 "이번 아름다운 공동주택 전시회를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 밖에 특별행사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디자인 캠프 결과물 전시회



디자인 캠프 결과물 전시회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순천대학교에서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와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디자인 캠프 내용을 전시한다.

'생태건축'이란 설계 주제로 열린 디자인 캠프는 순천대학교를 비롯한 광주대, 동신대, 목포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광주전남지역 건축학도 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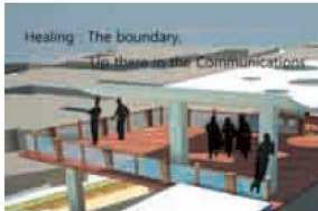
이탈리아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 광주 워크숍 작품 전시회



문화제 기간에 이탈리아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 광주 워크숍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탈리아 프리울리 모자이크 학교는 1922년 설립돼 전통 모자이크 기술을 전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2009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도 이탈리아 프리울리 모자이크 작품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경관 취약지 개선 사업 자료 전시회



지난 해부터 광주시가 추진 중인 경관 취약지 개선사업은 경관이 좋지 않은 웅벽과 담장 등 이웃간 소통을 막는 시설물을 개선해 생활과 문화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특별행사로 그동안 추진해온 경관 취약지 개선 사업 자료가 전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도시경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건축 디자인 공모전 입상 작품 전시회



이와 함께 친환경 건축 디자인 공모전 입상 작품도 전시된다.

한국태양에너지학회에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저탄소 설계기법과 지역커뮤니티센터'라는 주제로 친환경 건축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이 공모전 입상작 총 35작품을 이번 문화제 기간 중에 전시할 계획이다.

건축문화 **사랑**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신정철
의 회원일동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김강수
의 회원일동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김영수
의 회원일동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정태복
의 회원일동

제14회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광주개최

광주 라마다프라자호텔 등지에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 11월 2일부터 제14회 한·중·일 건축사협의회가 개최된다.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와 연계하여 열리는 이번 행사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 등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한·중·일 건축사협의회에 각국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하여 전남의 순천 낙안읍성과 환송 만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광사를 탐방하며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오세규 교수의 건축색션 의제 발표 및 환송 만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제14회를 맞는 한·중·일 건축사협의회가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기간중에 개최됨에 따라 광주건축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일정

구분	활동내용	참석대상	
11/2 (화)	전일	대표단 입국	3단체 대표단
	저녁	환영만찬	3국 대표단
	오전	핸드북위원회 3단체 회장단 회의	핸드북위원 및 대표단
11/3 (수) 한중일 협의회	오후	협의회 (APEC 등록건축사)	3국 대표단
		협의회 (법령/제도 분야)	
		협의회 (핸드북위원회 발표)	
		협의회 (차기위원회)	
저녁	광주건축인의 밤 만찬	.	
11/4 (목) 건축세션 및 건축물 탐방	오전	건축세션 (저에너지 프로젝트)	공개세션
	오후	건축물 탐방 : 낙안읍성	3국 대표단
	저녁	낙안읍성 1박	.
11/5(금) 건축물 탐방	오전	건축물탐방 : 송광사	3국 대표단
	오후	환송오찬	.
		대표단 출국	.

<p>해송 종합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강기석</p> <p>광주 광산구 신가동 384-1번지 Tel. 062-952-3691 Fax. 062-952-3693</p>	<p>디자인그룹현대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강성철</p> <p>광주 북구 신안동 133-2번지 2층 Tel. 062-266-7800 Fax. 062-266-7447</p>	<p>칸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기탁</p> <p>광주 서구 능성2동 671-63번지 3층 Tel. 062-351-6002 Fax. 062-351-6003</p>	<p>태영 종합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명수</p> <p>광주 서구 용암동 1189번지 2층 Tel. 062-654-6534 Fax. 062-654-6536</p>	<p>길 건축사사무</p> <p>건축사 김삼헌</p> <p>광주 남구 월산4동 973-11번지 2층 Tel. 062-376-0300 Fax. 062-376-0054</p>
<p>일우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선영</p> <p>광주 남구 월산4동 965-1 Tel. 062-367-7151 Fax. 062-367-7153</p>	<p>뉴텍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선채</p> <p>광주 서구 쌍촌동 1272-9번지 Tel. 062-371-3405 Fax. 062-371-3407</p>	<p>에덴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성룡</p> <p>광주 북구 통항동 40-10번지 Tel. 062-263-1659 Fax. 062-263-1657</p>	<p>용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용남</p> <p>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82-1 Tel. 062-529-6172 Fax. 062-529-6174</p>	<p>(주)대우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유곤</p> <p>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86-2 연합빌딩 5층 Tel. 062-372-1310 Fax. 062-373-1028</p>
<p>이공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재도</p> <p>광주 북구 용봉동 1426-1번지 Tel. 062-523-5323 Fax. 062-521-6423</p>	<p>영산이엔지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중철</p> <p>광주 서구 쌍촌동 1334-10번지 Tel. 062-382-0372 Fax. 062-381-4480</p>	<p>건축사사무소 D&D</p> <p>건축사 김중모</p> <p>광주 서구 쌍촌동 966-2번지 명지A 상가 202호 Tel. 062-372-1367 Fax. 062-372-1368</p>	<p>미주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김현중</p> <p>광주 서구 치평동 1202-2 랜드마크 1402호 Tel. 062-454-8200 Fax. 062-454-8201</p>	<p>우리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문창식</p> <p>광주 서구 쌍촌동 1281-7번지 Tel. 062-511-2500 Fax. 062-511-2505</p>
<p>건축사사무소 광야</p> <p>건축사 박대일</p> <p>광주 서구 화정동 784-4 현대오피스텔 205호 Tel. 062-361-9745 Fax. 062-361-9746</p>	<p>건축사사무소 해성에이앤시</p> <p>건축사 박상구</p> <p>광주 동구 동명동 200-109번지 Tel. 062-251-0383 Fax. 062-251-0385</p>	<p>건축사사무소 이감</p> <p>건축사 박진호</p> <p>광주 서구 쌍촌동 1239-7번지 Tel. 062-385-1401 Fax. 062-385-1412</p>	<p>금호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송명근</p> <p>광주 서구 쌍촌동 1239-7번지 Tel. 062-368-1213 Fax. 062-368-1214</p>	<p>건축사사무소 우창</p> <p>건축사 신찬균</p> <p>광주광역시 북구 유동2-10 해동빌딩 3층 Tel. 062-529-0406 Fax. 062-529-0407</p>
<p>(주)중원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심상재</p> <p>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el. 062-528-6290 Fax. 062-528-6293</p>	<p>(주)건축사사무소 제이원</p> <p>건축사 윤대두</p> <p>광주 북구 신안동 122-3번지 5층 Tel. 062-521-2377 Fax. 062-521-2399</p>	<p>(주)지에이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고재량·윤석호</p> <p>광주 서구 쌍촌동 966-14번지 4층 Tel. 062-382-8773 Fax. 062-382-8776</p>	<p>이조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윤양현</p> <p>광주시 광산구 송정동826-6 Tel. 062-944-8870 Fax. 062-944-8872</p>	<p>이영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이영문</p> <p>광주 동구 수기동 21-3번지 고운하이츠 2층 202호 Tel. 062-515-0432 Fax. 062-515-0436</p>
<p>종합건축사사무소 동도건축</p> <p>건축사 이영우</p> <p>광주 동구 계림1동 560-13번지 Tel. 062-512-7107 Fax. 062-512-7502</p>	<p>나성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임채열</p> <p>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7 Tel. 062-529-2300 Fax. 062-529-0108</p>	<p>동원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장동원</p> <p>광주 서구 화정3동 316-91번지 Tel. 062-374-7311 Fax. 062-374-7310</p>	<p>새광주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전홍현</p> <p>광주 북구 중흥동 642-4번지 Tel. 062-515-8382 Fax. 062-515-8381</p>	<p>초석 건축사사무</p> <p>건축사 정상채</p> <p>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el. 062-527-8042 Fax. 062-512-8041</p>
<p>정상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정정상</p> <p>광주 북구 중흥2동 327-28 Tel. 062-521-5995 Fax. 062-521-5996</p>	<p>수목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진성수</p> <p>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53-12번지 Tel. 062-384-2123 Fax. 062-384-2125</p>	<p>향인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최준호</p> <p>광주 서구 치평동 1288-1번지 4층 Tel. 062-384-5525 Fax. 062-384-5526</p>	<p>라일 건축사사무소</p> <p>건축사 최경락</p> <p>광주 남구 월산5동 1015-4 Tel. 062-655-7321 Fax. 062-431-7201</p>	<p>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p> <p>건축사 한명석</p> <p>광주 서구 능성1동 641-5번지 Tel. 062-352-0415 Fax. 062-352-0416</p>

공정한 사회, 공정한 건축



이상림 회장
(사)한국건축가협회

“각지의 건축인들은 물론, 창간 1주년을 맞이한 ‘건축문화사랑’에서도 공정한 건축의 가치에 주목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뜻을 함께 모아야...”

우리 사회가 점차 열린 시민의식의 태동을 인내하며 성숙한 정신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 국민 선언과 같은 화두를 던져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국격'에 실체를 통한 성숙한 자세를 지향하는 선언에 이어 '공정한 사회'로 가려는 국가적 구호가 선언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담은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공정'이란 단어를 뜻풀이하면 다양한 의역이 가능할 것으로 언어학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다만 그 의미를 짚어보면서 그것이 궁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적 변화에 이에 걸맞은 건축의 진보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마치 열풍이 불듯 국가 운영 기조의 하나로 선언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공정'이란 개념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일상 안에서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생각의 단편을 떠올려본다.

'공정'의 개념은 우선 공명정대, 불편부당, 공평무사 등의 언어적 개념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그 개념이 쓸림 없는 균형과 조화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인간 사회의 필요 덕목 가운데 중요 핵심임은 분명해 보인다.

자연 종교 혈연 학연 등으로 줄서기와 평가 크기 감싸기 등의 사회적 현상이 만연해온 우리 사회의 정서를 놓고 보면 이 단순하고 평이한 논리를 동반한 사회적 가치가 그리 만만해보이지만은 않다는 걸 누구나 인정할 것 같다. 그러니 이처럼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며 지극히 명료한 가치를 우리는 이상향, 즉 유토피아로 생각하며 그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지극히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를 이른다.

그렇다면 공정한 건축이란 물음도 성립 가능한 것인가? 그 가치는 무엇인가? 공간의 공정한, 형태의 공정함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이 사회의 질서와 어떤 영향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등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요즘 회자되는 화두인 '공정'을 논한 의미 있는 글을 최근 흥미롭게 읽었다. 이 내용은 그간의 논의와 무관하지 않은 생각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단서를 던지고 있다. 최근 발행된 <공간>지 11월호 칼럼에서 철학자 김용석은 "건축가는 '공간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과 세계를 예술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가는 '공정한 공간'을 실현하는 자세로 건축미적 실천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건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의 진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건축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 '공간의 정의' 곧 '공정한 공간'을 실현하는 일이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의 논리를 빌면, 이는 곧 건축가로서 사회를 위해 주목해야 하는 도덕적 실천의지에

다름 아니다.

그가 건축가에게 주문하고 있는 사회와 함께 하는 건축의 필요 요건은 바로 인문적 지향성이다. 건축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공정한 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문화적 정체성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시간성에 대한 인식을 중히 여기길 필요가 있다. 아무리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새로운 건축을 만들더라도 그 건축이 들어서는 터가 지니고 있는 기존의 질서, 예컨대 시간과 장소의 오랜 기억이 누적된 문화적인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문화적 토양을 잘 살려서 시간의 터가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의 문화적 질서와 잘 화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전반을 움직이게 하는 전문성의 가치가 조금씩 그 의미를 드러내며 사회와 친밀하게 소통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회적 질서 가운데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정작 시대를 보고 사람을 생각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내놓아야 할 전문가들이 자기가 취할 입장에서 물러나 반사적 이익을 찾고 덩으로 불의의 힘을 얻으려는 행태가 여전히 발견되기도 한다. 사회 안에서 함께 하는 공동체적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분야 안팎에서 두루 공공과 다중의 삶을 살지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세력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사회를 바라보는 사선이 보다 더 '공정'해야 하고 더

사회를 바라보는 사선이 보다 더 '공정' 해야 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공정한 건축 질서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문성' 이란 사실이다.

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이 같은 공정한 건축 질서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문성이란 사실이다.

그래서 사회의 공정함을 위해서는 그 사회 질서와 함께 하는 전문성이 긍정적으로 개입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런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문성이 사회 안에서 인정되고 소통되며 보편의 가치를 지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모든 '해야'하는 주체가 우리 자신임을 인식하고 그 책무에 주목하는 일이 놓여 있다. 그래서 앞에 놓인 숙제도 실은 남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몫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니 재론의 여지도 없지만 다시 반복하자면, 우리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우리 건축인들간의 공동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일치와 화합의 가치를 공유하고 되새기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과거 건축단체들간의 통합논의가 다시 생각나곤 한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공정한 건축,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건축 사회 안에서의 친밀한 소통은 필수에 해당한다. 그 일의 주체는 중앙-지방이 따로가 아니다. 경향 각지의 건축인들은 물론이려니와 창간 1주년을 맞이한 <건축문화사랑>에서도 이 같은 공정한 건축의 가치에 주목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뜻을 함께 모으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건축문화사랑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운동시설
농산물센터
판매시설

(주)한드레포트
HANDEUM REPORT CO.,LTD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136-6
TEL 062. 961.1111

농협회사법인 한드레농산(주)
한드레농산물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141-1
TEL 062. 960.0200



포지관련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업무시설

建築士事務所 건축사사무소
鮮明 선명
건축사 강석훈, 김광옥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58-6
TEL 062. 972. 8159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아홉번째 이야기 - 일본의 '구마모토'

이명규 교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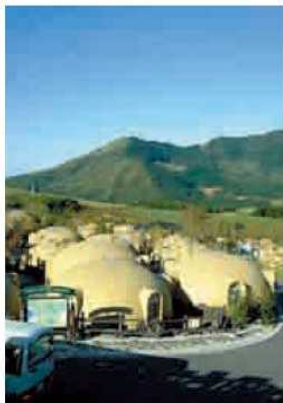
1. 첫번째 이야기 - 도시(City)
2. 두번째 이야기 - 광주의 공간발달사
3. 세번째 이야기 - 광주의 시가지계획
4. 네번째 이야기 - 싱가포르
5. 다섯번째 이야기 - 브라질의 '푸리피바'
6. 여섯번째 이야기 - 캐나다의 '밴쿠버'
7. 일곱번째 이야기 - 미국의 '시애틀'
8. 여덟번째 이야기 - 일본의 '요코하마'
(2010년 10월호에 기재)

농수산물과 관광지의 보고 : 구마모토현(熊本縣)과 구마모토(熊本)

구마모토는 우리나라의 도(道)에 해당하는 구마모토현의 현청이 있는 도시로 구마모토현을 대표한다. 구마모토현은 일본 규슈(九州)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예로부터 농수산물이 풍부하고 역사와 문화가 독특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특히 구마모토지역은 바다와 지금도 활화산인 아소산(阿蘇山)을 경계로 소위 산과 바다를 둘러싼 풍부한 농수산물과 많은 관광지를 갖고 있어 연중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구마모토성(熊本城)은 비록 최근에 수리되어 옛모습은 아니지만 중세시대 일본을 문화유산으로 대표하는 오사카성(大坂城) 및 히메지성(姫路城)과 함께 일본의 3대 성으로 유명하다.

구마모토현은 이러한 천혜의 풍부한 자원과 문화유산을 감상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관광시설을 만들어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사실 일본에서도 규슈지역은 농촌을 배경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하고 다양한 놀이 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구마모토현도 유명한 시설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아소팜 빌리지(ASO FARM VILLAGE)가 아닌가 한다. 아소팜 빌리지는 아소산 중턱 100만평의 부지위에 '사람·자연·건강'을 테마로 세계 최대 규모인 330동의 동형 호텔,

1,000㎡의 남녀 노천탕, 세계 각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바베큐식당 그리고 도시인에게 자연을 체험하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건강숙(Genki Forest), 친환경 농산물 코너와 체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아소 팜 빌리지는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러한 대규모 관광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중계 자속가능한 개발의 한 사례라 평가하고 싶다.



330개의 동형호텔로 구성된 아소팜 빌리지의 모습



아소팜 빌리지의 아간조명시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KAP: Kumamoto Art Polis)

건축과 도시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구마모토가 유명한 이유는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정책 때문이라고 하겠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정책은 당시 구마모토현의 호소가와 모리히코(細川護熙)지사가 유럽을 순방하



일본의 3대성의 하나인 구마모토성



호소가와 구마모토 현지사 (후에 일본의 총리가 되었다.)

던 중 '왜 일본에는 유럽처럼 저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없느냐?'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유럽순방 후 호소가와지사는 건축물을 만들 때부터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 것이 구마모토아트폴리스이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당시 일본의 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려는 데서 출발하였다.

사실 구마모토현을 비롯한 일본의 건축물들은 지진을 대비하고 예로부터 잦은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짓는다는 사고가 주류이었던 건축을 자체를 예술적이거나 아름답게 만든다는 생각은 적었다. 이렇게 해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정책은 추진되었으며 우선 공공기관이 먼저 추진하였고 민간의 경우 요청이 있으며 추진키로 하였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정책의 특징은 행정기관과는 별도의 일종의 위원회방식인 커미셔너를 임명해서 커미셔너가 책임을 갖고 건축설계를 지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건축을 설계가 없으면 커미셔너는 그에 적합한 건축가를 선정하여 설계를 맡기고 의뢰자가 만족을 하는 설계안이 나오면 실시설계를 하는 방식으로 커미셔너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로 초대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커미셔너는 규슈지역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이소자키 아라카(磯崎新)이었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정책은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 번째는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널리 확산시키겠다는 점이다. 그전까지 건축물이 예술품내지 작품이라는 이미지가 미약했는데 아트폴리스정책을 통해 건축물도 훌륭한 작품이며 예술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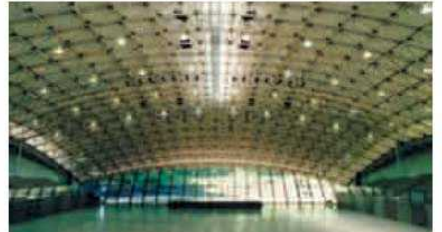


구마모토현의 서민용 주택단지 개발사례의 모습이다. 성남갑을 세워놓듯 똑 같은 건물들을 일률적으로 세워놓은 우리나라의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서로 개성적으로 생겼으며 단지내의 녹지에는 음악회와 마을의 축제가 열린다.

두 번째는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정책은 지사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단체장이 바뀌면 쉽게 바뀌거나 없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정책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세 번째는 별도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연간 약 1억 2천만 원정도의 운영비용이 든다고 한다.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볼거리를 제공한 사례도 없지 않은가 한다. 지자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정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일본인들에게 건축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주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렇다고 건축 작품 자체가 모두 우수한 것

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어찌하였든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정책으로 구마모토현을 널리 알리고 건축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는 점에서는 성공한 정책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다. 참고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정책을 추진했던 호소가와 현지사는 후에 규슈출신의 몇 안 되는 일본총리가 되었다.



5,602개의 삼나무 트러스트로 만든 오구니돔의 내부모습



오구니마을의 버스정거장인 '하스스테이션'의 건축물(삼나무로 된 구조와 유리로 둘러싸인 외벽)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탐방 : 오구니마을(小國町)

구마모토현내 오지 산간마을인 오구니마을은 삼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특별한 산물이 없는 평범한 산골 마을이었다. 더군다나 도시화현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마을은 더욱 폐쇄하였다. 이러한 때 새로운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오구니마을을 활력넘치는 장소로 만들자는 마을만들기운동을 전개하여 현재는 학술행사를 오구니마을에서 개최할 정도로 유명한 명소가 바뀌었다. 오구니마을의 아트폴리스의 특징은 삼나무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을 설계하는데 도입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오구니마을의 명소 건축물인 '오구니돔'의 경우 5,602개의 작은 경목으로 트러스구조를 짜서 지붕을 지탱하게 하였고 각 트러스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넣어 만들었다.



산림속의 우주선이름의 별칭을 갖고 있는 오구니마을의 초등 학교 건물

또한 오구니마을의 버스정류장인 '하스스테이션' 건축물도 트러스트는 삼나무로 구조를 만들었고 외부에는 유리벽으로 둘러싸게 하였으며, 1층은 지역특산물판매회와 휴게실이 있고 2층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이밖에도 10여 개가 넘는 독특한 오구니마을의 아트폴리스작품들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보는 재미가 매우 쏠쏠하다고 하겠다. 구마모토아트폴리스정책으로 생겨난 작품들이 100여 개가 넘는데 짧은 시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품들을 다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구니마을만을 둘러봐도 좋지 않은가 한다.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두번째 이야기 -
광장의 도시, 성당의 도시 '로마'

조용준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1. 첫번째 이야기 - 역사도시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일까?
(2010년 10월호에 기재)

이 글은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준 교수가 월간 '조선대학교 소식'에 연재하고 있는 내용을 직접 재구성하여 제공하였으며 매 회 세계 각국 역사도시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세계의 수많은 도시중에서 로마만큼 감흥을 주는 역사적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도 드물다.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로물로스 형제가 팔라티노 언덕에 건국한 이후 2,500여년 동안 수많은 역사적 이력이 겹겹이 겹쳐져 형성된 도시인데, 특히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당, 광장 등의 기념비적인 건축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이다. 거기에 흐르는 세월만큼의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는 역사적 자산을 스토리 텔링화 하고, 음악, 문학 등에 재활용한 창조적 도시이다. 더구나 16세기에 교황식스티스 5세가 7개의 언덕과 성당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계획이나, 미켈란젤로에 의해 재구성된 कै피톨리아 광장은 도시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



16세기의 로마

교황 식스티스 5세는 방문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포플라 성문안에 있는 광장을 시점으로 직선의 방사선형 대로계획을 통해 로마를 시각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이 1일동안에 주요성당을 순례할 수 있도록 주요 성당을 연결하는 계획을 세웠다. 판화형식으로 된 고대로마 지도를 보면, 초기로마는 매우 어수선한 도시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17세기 판화에는 교황식스티스 5세의 유기적 도로계획과 이집트등에서 가져온 10여 개의 오벨리스크가 주요 성당의 운동체계를 확립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성당외관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덕분에 로마는 길 찾기가 아주 쉬운 도시가 되었는데, 이전점에서 교황 식스티스 5세는 창조도시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 로마 광장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대전차 경기장의 장식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세워진 포플라 광장에서부터 하는 것이 좋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유럽의 수많은 순례자·문화가 등이 로마에 드나드는 길목이기도 한 이 광장은 동형지붕을 가진 산타 마리아 인 마라 팔리성당과 산타 마리아 인 몬테 산도 성당사이와 양옆으로 나있는 헬로체 대로(大路), 홀라 마니아 대로 라페타 대로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포플로 광장 헬로체 대로의 역사적 자산

광장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바부이노 대로를 따라 가면 삼위일체 성당을 배경으로 하는 137개 계단의 스페인 계단을 만나게 된다. 로마휴일로 더욱 유명해진 바로크 양식의 이 계단 이름은 근처에 있던 스페인 대사관에서 유래한다. 기타치는 사람, 시가지 전경을 조망하는 사람, 연인과 사랑을 속삭이는 사람들로 분비는 이 계단은 여름밤에는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쇼가 열리기도 한다.

1986년에는 미국 맥도날드가 이 광장에 진출에 반대하여 시작된 슬로우 푸드 운동의 출발점이기도 한



삼위일체성당과 스페인계단

데, 이 운동은 나중에 슬로우 시티운동으로 발전한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헬로체 대로를 따라 가게 되면 이 대로(大路)와 수직으로 나 있는 피아 대로를 만나게 되는데, 피아성문 쪽으로는 모제분수가, 반대 쪽에는 대통령 관저이자, 교황 식스티스 5세가 운명했던 팔레조 쿨리날레가 있다. 헬로체 대로를 따라 더 가게 되면 교황 식스티스 5세가 연결요소로 활용한 된 산타 마리아 마제오리 성당, 산타 크로체 성당, 산 지오바니 라테라노 성당등을 만나게 된다. 이중 산 지오바니 라테라노 성당은 14세기 초 교황청이 프랑크 아비뇽으로 잠시 옮겨지기전까지 교황이 머무른 성당이고, 산타 마리아 마제오리 성당은 로마의 중요한 연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성당이다.

포플로 광장 홀라 마니아 대로의 역사적 자산

포플로 광장에서 두 번째인 중앙대로는 베니치아 광장까지 이어지는 홀라 마니아 대로이다. 로마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들리는 트레비 분수도 이 부근에 있고, 세계2차대전 참전 무명용사비와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초대왕 빅토리아 에마누엘 2세의 기념관도 이 대로를 따라가면 만나게 된다.



트레비분수 야경

무슬리니가 집무실로 사용하면서 발코니에서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곤했고, 2차대전의 참전을 선언했던 베니치아궁도 이대로를 따라가면 만날 수 있다. 이 뒤편에는 7개 언덕중에서 가장 신성한 언덕으로서, 로마군단의 개선행렬의 마지막 정착지이자, 미켈란젤로의 최대 걸작인 कै피톨리아 광장이 있는데, कै피탈(수도)이란 단어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이 뒤편에는 로마의 강력한 정치, 경제, 사법, 행정, 종교 기관이 몰려있던 포로로마노가 있다. 지금은 폭격 맞은 폐허 처럼 나뒹굴고 있는 돌덩어리와 기둥만이 당시의 영광을 말해 주고 있지만, 한때는 로마시인의 생활중심이자 공화당, 신전, 원로원 등 있는 권력의 중심지였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한 곳도, 안토니우스가 명연설을 했던 곳도 이곳이며, 포럼이라는 용어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포로로마노

폐허화된 포로로마노를 보노라면 로마제국 영화에서 봤던 하얀 옷을 걸친 원로원들의 권력다툼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찰튼 해스톤이 주연한 영화 벤허를 연상하게 하는 30만명을 수용하는 대경기장 치르코 맞시모,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미국 신문기자 그레고리 팩이 공주 오드리 헵번 앞에서 손을 잡아놓던 아름다운 중첩이 있는 코스메틴 성당 앞 둥근 대리석 판의 진실 입,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집이 있는 로마탄생의 기원 팔라티노 언덕, 콘스

탄티노스 황제가 밀바우스 다리 전투에서의 승전한 기념으로 세운 현존하는 로마 개선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콘스탄티노스 개선문, 검투사들이 죽고 죽이던 검투 경기장인 콜로세움도 모두 이 부근에 있다.

포플로 광장 라페타 대로의 역사적 자산

포플로 광장의 오른쪽에는 라페타 대로가 티베르강 연안까지 뻗어 있는데, 티베르 강변에는 로마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영묘가 있다. 컨서트 홀로 사용된 적 있는 원통형의 이묘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격파당한 후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매장되기를 유언하면서 생긴 로마사람들의 상심을 달리기 위해 만든 묘이다. 이 입구에는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유일한 현대식 하얀건물인 평화재단도 있다. 대로를 따라서 좀 더 가면 나보나 광장과 판테온 신전이 있다.



판테온 신전

미켈란 젤로가 극찬했다는 판테온 신전은 코란트 양식의 정면 기둥과 기둥없이 반원형의 지붕과 아치만을 이용한 벽만으로 이루어진 내부공간, 천정의 돔 가운데에 뚫려있는 둥근 창은 경이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빅토리아 엠마누엘 2세 황제의 무덤도 여기에 있다.

나보나 광장은 원래 타원형의 마차 경기장을 레스토람, 카페가 있는 광장으로 개조 한것으로서, 평시에는 관광객이나 어린이들로 붐비지만, 일요일에는 대규모 미술품, 공예품의 판매 등 다채로운 시민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되고 있다. 광장에는 베르니니가 설계한 도나우강, 나일강, 갠지스강, 플라타강을 의인화한 4대 강 분수가 있고, 주위에는 거리악사의 연주와 관광객의 사진촬영 소리가 광장 분위기를 이루며 하나의 매력을 만들고 있다. 이 부근에는 일요일이면 로마 주변 농민들이 농산물을 신고와 판매하는 화형당한 부르노 동상이 있는 피오리 광장도 있다.

티베르강을 건너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영묘로 계획한 거대한 원통형의 카스텔 산타 엔젤로가 있다. 천사의 성으로도 불리는 이것은 한때 정치범들의 악명 높은 형무소로 사용된 적도 있고, 오페라 토스카가 공연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천사의 성과 다리의 야경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그 옆에 있는 화해의 길을 따라가면 여의도 면적의 1/6 정도로서, 1929년에 교황령에 의해 독립국가체제가 된 바티칸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지만, 성 피에로 (성베드로) 대성당, 광장등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데, 이중 역대 로마 교황 거주하던 바티칸궁을 개조한 박물관은 늘 관광객으로 혼잡스럽기까지 하다.

성 베드로가 묻혀 있는 성 피에로 대성당은 1506년에 브라만테의 주도로 시작되어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에 의해 1626년에 완성되었는데, 로마의 모든 건축물은 이 성당 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없도록 할 정도로 로마의 상징이다. 베르니니에 의해 완성된 대광장은 경기장 장식을 위해 이집트에서 운반해온 25.5미터의 오벨리스크와 그 좌우의 분수대가 있고, 그 주위에는 284개의 도리니아식 기둥으로 형성된 반원형의 회랑이 도시와의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로마는 까라칼라 목욕탕, 베르니광장, 해골사원, 콜로나 광장 등 역사적 유산이 즐비한데, 로마에서 느낀 것은 '도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점과 아는 것만큼 느껴진다'는 어느 선현자 말의 실감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유기농 생태전남실현을 위한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 및 품질연구/분석지원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국제적인 우수실험실을 갖춘 종합연구동 신축설계경기 공모결과 (주)발해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당선적으로, (주)라운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우수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기람건축의 안이 가작으로 선정됐다. 총 50억 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263.55㎡ 규모로 건립된다. 당선안은 다양한 외부공간을 형성하여 휴식공간과 효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대지의 복합적인 성격을 아우르는 큰 흐름을 형성하여 기존 경사지의 활용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전남농업기술원 종합연구동 신축 설계공모



당선작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이주경 건축사

대지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206-7외 3필지
 대지면적 : 126,106㎡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연 면 적 : 24,202.20㎡(기존: 20,938.65㎡, 증축: 2,263.55㎡)
 건축면적 : 14,806.90㎡(기존: 21,938.65㎡, 증축: 1,832.27㎡)
 건 폐 율 : 11.74%
 용 적 율 : 17.02%
 층 수 : 지하 1층, 지상 3층
 최고높이 : 15.65M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 마감 : 티타늄아연판, 친환경합성목재, T38 로이복층유리
 주 차 : 17대(장애우주차 3대포함)

▲ 조감도

▲ 배치도



▲ 조감도



▲ 주진입부 투시도



▲ 전체 조감도



▲ 부분 투시도

우수작

라운 건축사사무소
최환석 건축사

전남대학교 동아시아 교육센터 신축 설계경기 공모결과 (주)유담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와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공동안이 당선적으로,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우수작, (주)발해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가작으로 선정됐다. 총 200억 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연면적 11,995.79㎡ 규모로 건립된다. 당선안은 에너지저장, 저탄소 배출 등의 친환경 캠퍼스, 학 교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창조적 그늘, 창의적의 조형성 구현과 미래지향적 첨단시설, 주변환경 및 지역주민을 배려하고 더불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학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안으로 계획되었다.

전남대학교 동아시아 교육센터 신축 설계공모



당선작 (주)유담엔지니어링 양병범 건축사
+ (주)그룹포에이 박동준 건축사

▲ 메인 투시도

▲ 배치도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용봉캠퍼스내 지정부지)
 대지면적 : 969,860㎡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 3,846.12㎡
 용 적 율 : 1.11%
 최고높이 : 23.8M
 주요 마감 : THK30라임스톤, AL 쉬트판넬, THK24로이복층유리
 주 차 : 61대(장애우주차2대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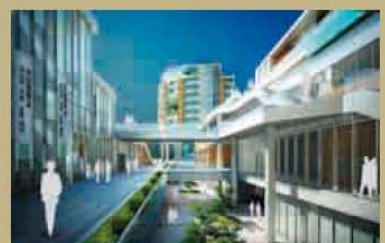
연 면 적 : 11,995.79㎡
 건 폐 율 : 0.39%
 층 수 : 지하 1층, 지상 6층
 주요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조 경 : 2,097.06㎡

우수작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조성호 건축사



▲ 전체 조감도



▲ 중정 부분 투시도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개최

전라북도 건축문화 발전방안 모색, 관람인원 1,500여명 참석, 성황리에 마쳐

10월 12일(화)~15일(금) 4일간에 걸쳐 개최된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는 전라북도와 건축 3단체(전라북도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전북지회, 한국건축가협회전북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전북도청사 회의실과 전시실에서 도내 건축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획전시회, 학술세미나, 건축포럼, 건축관련 영화상영 등 문화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



세계여성건축가협회 솔랑주회장 특강진행

전라북도에서는 매년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축인 발굴을 위하여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조례'를 시행하고있으며, 전라북도에 등록된 건축사 및 건축사보 또는 도내소재 대학생 등 전북도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은 공공 및 일반건축·고건축·주택(공동주택)계획과 건축디자인 계획 등 자유롭게 선택한 주제로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한 계획작품 부문과 5년 이내 준공된 사용승인 부문으로 시행되어지며, 사용승인부문 대상은 '김제문화예술회관을 출품한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금상은 '전라북도체육회관을 출품한 (주)올그룹 건축사사무소 강문수 건축사가 수상하였다. 계획작품부문 학생부 대상은 '知識·사유의 기호'를 출품한 전북대학교 박지원·김은별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특별상으로 세계여성건축가협회장 상 및 건축 3단체 회장상을 수상하였다.

전북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건축사협회 최영진 회장, 전라북도건축사회 이성엽 회장 및 회원, 세계여성건축가협회 솔랑주(프랑스) 회장,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황정복 회장과 회원 및 도내 건축인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개막을 알리는 장이 되었으며, '세계건축흐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실시된 솔랑주 회장의 특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지속 가능한 건축 및 도시환경의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자고 강조하였다.

건축작품 전시회 및 건축사 시화전

전라북도건축사회가 주관하여 12일부터 15일까지 전시된 건축작품전시회는 도내 회원들의 21개 건축작품과 아울러 서양화, 서예작품, 문인화, 사진 등 서화

29점이 한 공간에 전시되어 건축사들의 창작의욕과 다양한 취미생활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며, 건축문화상 출품작 및 세계여성건축가 작품 등 총 125점이 도청사 1층 갤러리와 로비에 전시되어 일반인들의 건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특히 도내 소재 건축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학과수업의 일환으로 단체관람 하는 등 예비 건축인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우수설계 사례발표

14일(목) 도청 중회의실에서 공무원,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건축사회 주관으로 개최된 주제 강연으로 '창의적인 우수설계 사례'-(주)길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Disign·Designer·Designers'-(주)중합건축사사무소 토우재 김주석 건축사가 각각 강연에 나서 앞으로 나아갈 건축설계 방향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길환 건축사는 설계사례 강연에서 디자인을 가미한 70여 설계작품 CD를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좋은참고 자료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강연목차로 디자인의 중요성과, 부문별 디자인기법, 동영상을 통한 설계사례등을 발표하였으며, 도시건축의 스타일이란 시대적, 경제적, 지역적특성이 다르듯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대적재료와 새로운 시공방법 등으로 구조적제한을 해결하고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센터 레버 사례와, 디지털 동영상을 통한 '군산시 시립박물관'설계사례 등 60여 작품에 대하여 디자인 언어로서 건축디자인을 이야기 하였다. 김주석 건축사는 '생활문화사로 본 주거의 변화와 도시풍경으로 디자인을 언급하며 삶의 방식 변환이 어떻게 공간을 변화시키고, 각 시대의 주체변화에 따라 공간의 주체가 변화함을 이야기 하였다. 한 건물안에 유흥업소와 종교건물이 혼재하는 등 다양한 도시건축 사진으로 사례를 보여주고 대안적 공간, 건축과 건축가의 본질적인 사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학술세미나 및 건축포럼

15일(금) 도청사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학술발표회에서 남해경 교수(전북대학교)는 '전주한옥마을 주거건축 평면의 특징'에 관한 연구결과를 통해 전주한옥마

을 한옥건축물의 시대별 주거환경이 한옥건축에 미치는 영향을 유형적 모델화하여 제시하고, 전주한옥마을이 가지는 진정성과 정체성이 정부의 행정과 재정적 지원에 의해 관광상품화로 상실 되어가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건축문화제'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청사에서 열린 전북건축포럼

전북건축포럼 주제인 '전북건축의 발전방향은 남해경 교수(전북대학교 건축학과)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전방안으로 '건축문화단체 총연합회설립', '건축교육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구성'이 요구되며 지방 도시재생 정책전략으로 테스트베드 실용화, 대응과제로 창조도시와디자인, 친환경건축기법,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구축, '설계경기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한다. '수주산업으로서의 건축문화의 한계'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객원으로 토론에 참가한 시정건축가(포항시)는 도시공간은 정치, 행정업무와 나누어지고, 사적인 공간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도시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한 포항시 '테라노바 프로젝트'에 대하여 시정건축가의 역할과 아트폴리스 시행사례로 건축인들의 역할과 지자체에서 지원해야할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건축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서 참고하여 제도적개선과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한편 전라북도건축사회 주관으로 4일동안 도청사 1층 영상관에서 건축관련 영화(Get Smart, 2012, 시어스타워, 내 버리속의 시우개, 경이로운 현대공학 등)를 상영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세계여성건축가협회 회원 100여명을 초청, 새만금지역과 전주한옥마을 투어를 통해 새만금의 무한한 가능성과 한옥을 통한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김기범 건축사 기자 vivo@kira.or.kr

건축문화 **사랑**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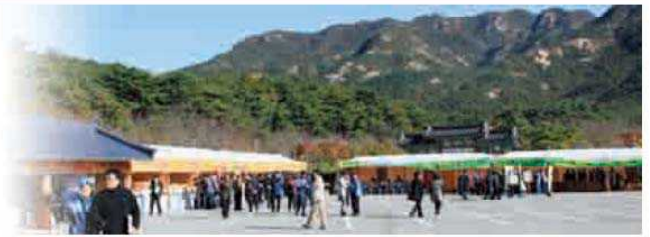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이성업
회원들

진안 마이산 운해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

한옥의 멋 세계로! 겨레의 숨결 미래로!



한국의 산은 부드럽다. 노년기에 해당하는 한국의 산은 올라간 산의 모양새에 따라 지어진 초가집과 어울린다. 지금은 초가집이 사라져 아쉽지만 산 아래 다 소곳이 앉아있는 기와집들의 모습들은 뒷산을 그대로 닮아 있다.

마을어귀 장승을 뒤로 하면 느티나무아래 정자가 있고, 마을의 고샅길을 걷노라면 아담하게 쌓아올려진 돌담길너머 노랗게 익어가는 감나무와 사람들 그리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기와집의 사랑채, 팔작지붕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한옥건축박람회



영암 구림마을에서 열린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 개막식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가 10월 26일(화)~31일(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전라남도, 영암군 주최, 한옥건축박람회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영암구림한옥마을에서 개최되었다.

도는 행복마을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한옥 보존과 보급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한옥의 관광자원화·세계화를 위한 방안찾기에 노력해왔는데 한옥건축박람회의 개최는 한옥관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한옥건축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행사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

영암구림전통한옥마을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한옥마을에서 한옥의 멋 세계로! 겨레의 숨결 미래로! 천년의 유혹, 녹색의 감동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등의 총 7종 34개의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일회성관광위주로 개최되는 기존건축박람회와는 차별화를 꾀하였다.

개막식 등의 공식행사와 한옥건축워크숍 등의 학술행사, 한옥시공시연회 등의 주제행사 8개와 한옥그림그리기 등의 체험행사 9개, 그리고 기타 기획, 투어, 부대행사 등은 한옥건축박람회를 찾는 이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 체험행사에는 한옥 그림 그리기대회, 전통 목조건축모형경구, 한옥퍼즐 맞추기, 목재조립, 참살이 목공예, 청정황토 흙 놀이, 흙벽돌 상징물 모자이크 등 다채로운 체험거리를 준비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주거문화전, 한옥-여섯개의 시선전, 한옥모형집 전시, 한옥설계사진전, 행복마을 홍보관 등 6개 존으로 구성된 주제관도 선보였다.

전통한옥과 현대한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지전거를 타고 전통한옥마을을 둘러보고, 행복마을의 현대 한옥에서 잠도 자보는 체험도 할 수 있었다.

또한 전통한지공예체험, 백제의상체험, 전통악기체험, 전통민속놀이 체험, 친환경천연염색 체험, 무료가훈 써주기 등의 다채로운 기획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이밖에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행복마을 농·특산물 판매장, 남도음식점등의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 프로그램

구분	시간	행사명	장소
주제행사	상설 (10:00~18:00)	한옥자재전시관	영월관 광장
		세계 주거문화전·한옥-여섯개의 시선(眼線)전·한옥모형집 전시·한옥 설계전·한옥 사진전·행복마을 홍보관	주제관
체험행사	상설 (10:00~18:00)	전통 목조건축모형 경구 체험·한옥 퍼즐 맞추기·목재조립 체험·흙벽돌 상징물 모자이크	주제관 옆
		참살이 목공예 체험·청정황토 흙놀이 체험 한옥민속놀이 체험	주제관 앞 구림한옥마을
기획행사 '한스타일'	상설 (10:00~18:00)	전통한지공예 체험·백제의상 체험·전통악기 체험	영월관 광장
		전통민속놀이 체험	주제관 옆
		친환경 천연염색 체험 무료 가훈 써주기	영암도기박물관
투어행사	상설 (10:00~18:00)	영암도기만들기 체험	영암도기박물관
부대행사	상설 (10:00~18:00)	구림한옥마을 지전거투어·구림한옥마을 생활한옥 견학	영암공원 입구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행복마을 농·특산물 판매장 남도음식점	영월관 광장 한옥음식문화센터

「전남건축사회 건축인의 밤」 개최



호텔현대 목포에서 진행된 전남건축인의 밤 행사

전남건축사회는 2010년 10월 26일(화) 18시에 영암군 삼호읍 '호텔현대 목포'에서 '전남건축인의 밤' 만찬을 개최하였다. 이는 전남건축인의 단합과 화합을 목적으로 처음 시행되는데 전남도·시·군 건축공무원, 전남도 건축사회원 등 28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막식 진행사로 14시부터 한옥건축박람회 참관과 함께 '전남의 전통문화와 건축'이라는 주제로 천득영 교수님의 강연과 연회등이 있었고, 유공건축인의 표창 등이 있었다.

박종호 건축사 기자 k21024@chdl.com

케이블 순동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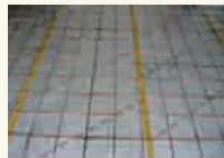
전국 총판 시공업체



시공 전



시공 모습



시공 후



콘크리트세면

취급품목 케이블 순동히터, 아노다이징 히터, 케이블 히터, 온수마루, 전기 강화마루판넬

시공실적

- 해남 우리병원
- 해남 중앙교회
- 완도 약산 보건소
- 여수 호남 정례식장
- 순천 아리아트 어린이집
- 순천 네버랜드 어린이집
- 광주 월곡 지구대
- 광주 원광 한방병원
- 광주 신안 여성 고시텔
- 광주 방림동 산성교회
- 광주 수완 빛과 사랑교회
- 광주 금호 변별교회
- 광주 상무 예술의 전당
- 광주 광산 미래 아동병원
- 광주 남구 미래 아동병원
- 광주 북구 미래 아동병원
- 시청 공무원 연수원
- 보성 어르신 노인병원
- 화순 화평교회
- 화순 노인병원
- 담양 청평 우리병원
- 담양 원복고 노인 복지관
- 담양 노인병원
- 담양 청평 한우촌
- 함평 학다리 초등학교
- 함평 노인 복지관
- 장성 문향고 기숙사
- 도초 고등학교 기숙사
- 고흥 고등학교 기숙사
- 완도 소방서
- 완도 금일 보건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400번지
TEL : 062 - 523 - 3711
FAX : 062 - 523 - 3713
Mobile : 010-6890-0365
E-mail : aty0365@hanmail.net

학교소개는 우수건축인 양성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하였으며, 먼저 4년제 또는 5년제 대학교의 건축전공을 광주·전남·전북 등 소재지별로 구분한 후 학교명의 한글 순서로 게재한다. 기사내용은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건축 혁신의 신화 창조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전주대학교 건축학과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년고도 전주를 기반으로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갈 중심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인문, 사회적 속성과 예술 그리고 공학적 속성이 함께 공존하며 인간을 주체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 내고 있다.

세계화 추세에 맞는 건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공인 5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국제건축교육인재에 적합한 전문건축인을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아래 실기위주의 독립된 5년제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매년 해외 우수건축물답사 및 설계사무소 현장실습을 통하여 균형 있는 시각과 예술적 감각을 보유한 우수 건축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

우리 학과는 국제 공인 5년제 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5학년 인턴십 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인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실무 중심과 취업중심 교육으로 건축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있으며 UIA건축학 국제 인증(KAAB)준비를 위한 인증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대학 건축학과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학과 내 전 교수가 설계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장실습을 의무화 하고, 건축설계 교육의 모든 과정들의 교원을 수도권에서 실무 능력을 겸비한 지명도 있는 겸임교원을 확보하여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간접적인 경험까지 우수한 교원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개인별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진로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개별적 요구를 수렴하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는 슈퍼스타

특별 교육 과정운영으로 해외 연수 및 취업을 위해 중국의 연변 과학기술대, 청도이공대학, 심양공과대학 건축학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또한 해외 유수의 건축대학과 학생교환을 추진 중이며 전공교육의 심화를 위해 매년 현대건축 수업과 연계하여 국내 및 일본의 건축답사를 운영하고 있다.

1999년에는 중국연변 과기대 건축학과 와 합동설계워크샵 및 합동전시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8월에는 중국청도 이공대학 건축원(5년제)과 상호 교

균형있는 시각과 예술적 감각을 보유한 우수 건축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류 협정을 체결하고 건축 학술 세미나와 건축작품 합동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국제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 청도이공대학건축원과 프로젝트 베이스 및 실무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며, 미국KMD(LA소재)와 홍콩RAD 설계사무소와 실습 인턴십 제휴를 통해 세계화 시대에 맞는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제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교육특성에 맞게 학생 개인별 작업공간을 마련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스튜디오 및 설계교육에 적합한 강의 시설과 교육 기자재를 확보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100여명이 동시에 설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open 스튜디오와 영상시스템을 갖춘 창의실, 암실 등을 갖추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각종 설계대회에서 우수한 실력 입증

2003년, 2004년 2년 연속대한민국 건축대전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였으며 2002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각종 건축대전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총115건의 각종 상을 수상하여 그 실력을 입증 받았다. 스위스 연방 취리히 공과대학 ETHZ(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에 재학중인 우리학과 출신인 채가을(96학번)양은 서울시가 한강 노들섬에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과 청소년 야외음악당을 건립하는 한강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 아이디어 국제 공모전에서 2등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학생 개인의 특성을 살려 설계분야 뿐만 아니라, 실내 건축대전, 건축도시 사진전에서도 여러 차례 수상한바 있다. 이러한 실력으로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연속 취업을 100%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우리 전주대학교 건축학과는 국제무대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갈 슈퍼스타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최상의 교육으로 세계화 추세에 맞는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국제무대에서 무한한 열정을 발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학과장 : 강대호 교수 dhkang@jj.ac.kr
학과사무실 : 063)220-2653



단체MT



설계수업



설계작업실



작품전시회

언제나 가까이 있는 친구, 신협이 함께 합니다!

확복까지 빈틈없이 실손의료실비보험 (중상경상신협)

- 실손 90% 보장
- 국민건강보험 혜택 범위 외의 실비 보장
- 한달비용 보장 및 상급병원으로 차액 보장
- 연한형 환도 내

임치비리 집중보장으로 든든하게 임보험

- 한한 기입으로 80세까지 보장
- 고액의 잔치비 및 임치(임비) 지급
- 김사관 외의 사망, 80%이상 유류상해사에도 보장

비파세, 복리, 자유인출까지 1석3조 저축보험

- 실세금리에 연동되는 비파세 상품
- 00년 만기시 이자소득세 면제
- 복리의 수익률에 초년도 보너스 관리
- 최고 1% 추가 지급(연2회)
- 중도인출가능해 연면리 저축은행용

신협카드의 특별한 혜택과 서비스

- 신협카드만의 특별한 혜택**
 -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기능이 하나로
 - 신협 체크카드 하나로 모든 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협 체크카드 결제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필요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조항에 따라 특별 우대금리의 적용
 - 회원의 월간 이용금액에 따라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월이점으로 필요자금 수시대출 가능
 - 결제계좌에 대한 대월약정으로 필요자금을 신속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자알림(SMS) 서비스
 - 카드 이용사항에 실시간으로 고객님의 휴대전화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발송해 드립니다.
 - 월간 이용수수는 300만 원입니다.
 - 사용처시 통장에서 바로바로~
 - 통장의 잔액범위 내에서의 사용으로 말문만 소비활동용 유도시스템.
 - 올바른 경제 습관이 필요한 자녀의 용돈관리에 안심맞춤 카드입니다.
 - 맞춤형 체크카드 발급
 - 원하는 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 체크카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 소독결제 혜택
 - 연회비 면제
- Cash-back 서비스**
 - 1) 체크카드 이용금액의 0.5% 캐시백(하위 2,3,4의 특별가맹점은 제외)
 - 2) 영화 CGV 1,500원 할인(할회, 연2회)
 - 3)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할인(할회, 연4회)
 - 롯데월드(당일), 우당랜드(매주), 패밀리랜드(광주) 자유이용권 50% 할인
 - 4)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5% 할인(할회, 연2회)

www.cu.co.kr

신협카드 이용안내서

신협카드 하나로 다양한 혜택을 즐기자!
특별 우대금리, 동원한 Cash-back서비스 등

광주건축사 신협
TEL.062)527-8890~1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51회 건축전



기간 중 여러 초청강연들이 있었다. 27일에 문화재청 임슬옹 정책국장의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강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끔 하였다.

28일에는 전남대 건축학부 신남수 명예교수의 남도문화와 도시건축의 방향에 대해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향토발전에 기여해야겠다는 다짐을 이끌어냈다.

29일에 국토 해양부 서중대 차관 성균관대학교 진상운 교수가 지방건설 산업 활성화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30일 토요일에는 졸업생과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을 펼쳤다.

내년에는 보다 더 완성도 높은 건축전을 준비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미술기 학생기자
homin1004@nate.com

지난 10월 27일 오전 11시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1호관 9층 건축학부 홀에서 51회 건축전 개막식이 열렸다.

27일을 시작으로 3일간 전시 및 강연이 이뤄지고 30일은 동문초청의 행사를 주최하였다. 재학·졸업생들과 교수님 및 외부 인사들의 작품들이 양 200여 점이 전시되었다. 전시작품을 통해 그동안 해온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학생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되었다.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건축전 개최



지난 10월 27일,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는 건축전을 개최하고 29일까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건축전에는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의 작품 등 우수 학생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문화건축학부 학생들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제11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응모작 'Eri-on'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곽대경, 이아린

가져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탄생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빠르게 변화를 외치는 현대 도시민들에게 어쩌면 고속열차는 꿈의 열차로서 인식될지도 모른다.

전국을 단시간에 운행하는 뿔 뚫린 고속철도와는 대조적으로 실제로는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지 못하는 현대의 수많은 도시 그리고 그 안의 우리들.

눈부신 발전으로 마치 모든 것이 빠르게 하나로 통합된 것처럼 보이는 현대 도시에서 본 계획안을 통해 어머니 뱃속 태아의 모습처럼 서로의 가슴으로 소통하는 우리를 본연의 모습으로의 회귀, 더불어 속도와 기술이 아닌 사람과 사람 그리고 도시와 도시와의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서민식 학생기자
archifly@nate.com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초청강연회

- ▶ 건설업의 미래와 대응전략
- 김동현전무 (주)코오롱건설
- 11월 25일(목) 오후 3시
- 광주대학교 호심기념도서관 5층 세미나 1실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이훈희 학생기자
hh3759@naver.com



꿈의 열차라 불리는 이른바 '고속 철도의 시대'가 된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 보유국이 되었다.

고속 철도의 개통으로 전국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를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강 필 서 광주 서구 차평동 1278-7 Tel. 062-360-7511 Fax. 062-360-7505	조형 건축사사무소(주) 건축사 강 현 구 광주 서구 풍암동 1036-13번지 Tel. 062-053-8122 Fax. 062-054-8123	선택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 곤 광주 북구 동림동 274-2번지 (4층) Tel. 062-512-6800 Fax. 062-513-3570	(주)건축사사무소 AD그룹 건축사 심 상 봉 광주 서구 풍암동 1145-5 Tel. 062-527-5000 Fax. 062-523-3700	(주)경향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양 기 봉 광주 북구 신안동 501-15번지 Tel. 062-529-4980 Fax. 062-527-4980
(주)건축사사무소 AD그룹 건축사 양 동 윤 광주 서구 풍암동 1145-5 Tel. 062-527-5000 Fax. 062-523-3700	(주)건축사사무소 AD그룹 건축사 양 동 현 광주 서구 풍암동 1145-5 Tel. 062-527-5000 Fax. 062-523-3700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임 경 희 광주 서구 차평동 1208번지 310호 Tel. 062-373-3131 Fax. 062-384-3534	동신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 광 천 광주 서구 쌍촌동 1239-7 Tel. 062-373-8804 Fax. 062-374-8806	우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 남 근 광주 북구 용봉동 1382-1번지 Tel. 062-513-8051 Fax. 062-513-8752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건축사 정 태 호 광주 북구 중흥동 694-10 Tel. 062-512-8044 Fax. 062-512-8041	수전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조 휴 환 광주 북구 용봉동 1414-3번지 Tel. 062-526-8861 Fax. 062-526-8863	건축사사무소 시명 건축사 차 은 영 광주 서구 농성동 304-1 Tel. 062-362-0544 Fax. 062-351-1105	한샘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최 경 양 광주 북구 중흥동 644-22번지 Tel. 062-526-4414 Fax. 062-524-4415	광남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최 창 진 광주 북구 오치동 975-19 Tel. 062-263-7752 Fax. 062-263-7752

디자인 코리아!
 녹색성장의 기수!
 친환경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1st

축하합니다.
 건축문화 사랑! 창간 1주년

2010 자랑스런 건축인 '전남대학교 故임영배 교수'



안당 故임영배 교수

안당 임영배 교수 1960년대 이후 호남권 근대 건축의 거장으로서, 광주와 남도의 이미지를 잘 표현한 광주시민회관과 전남대학교 용봉 캠퍼스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또한,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40여 년간 재직 당시 끝없는 연구와 후진양성에 노력하여 2010년 '자랑스런 광주 건축인'으로 선정되었다.

성장 배경 및 건축에 입문하게 된 동기

임영배 교수는 1932년 9월 20일 전라남도 무안 현경에서 임이조 선생과 이경림 여사의 4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한창이던 때에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일제 말기와 6.25를 거치며 성장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새로운 시대는 공업이 주도할 것이라는 주위의 권유로 1950년 목포공업 중, 고등학교를 졸업 후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에 입학하여 건축에 대한 학문적 열망과 타고난 그림솜씨는 당시 한국전쟁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게 된다.

1957년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1997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40년간 재직 중에는 공과대학 초대 선출직 학장과 교무처장을 역임하였고, 1998년 은퇴 이후 전라남도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2008년 8월 27일 질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작품과 후학에 열정을 쏟은 진정한 교육자이자 건축사였다.

하였는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로 사용되고 있다.

1971년 광주와 남도의 이미지를 잘 표현한 건물로 평가 받고 있는 광주시민회관과 1975년 전남대학교 용봉 캠퍼스와 학동 의대캠퍼스의 마스터플랜을 진행하였고 당시 허허 벌판이던 용봉캠퍼스의 컨셉이 현재까지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한다.

용봉 캠퍼스의 특징은 본관과 도서관을 중심축으로 캠퍼스의 중심에 학생회관, 대강당을 포함 대학지원시설을 집중하였고, 녹지로 띠를 두른 다음 오른쪽에 자연계, 왼쪽에 인문사회계를 배치하였다.

커다란 광장을 앞에 둔 하얀 빛의 중앙도서관은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처럼 '전남대학교의 대학의 정신을 상징하는 건물'이 되었다.

그리고, 근대건축교육을 받아 그 이념에 충실하였던 임 교수는, 대강당에 이르러 신고전주의적 양식을 사용 웅장한 전면 파사드를 통해 다분히 기념비성을 의도한 건물로 설계 하였던 것 같다.

교육자로서 모범이 되는 업적 등

당시 임영배 교수는 세계건축의 조류 속에서 한국건축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며, '새로운 우리의 것을 시도하기 위해 형태의 모방에서 탈피하고 전통을 굳건한 정신적 토대로 믿고 서서 창조적인 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한국건축의 미래에 대한 전통성의 문제에 전향한 임영배 교수는 1981년 '한국석탑건축의 조형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



故임영배 교수가 설계한 전남대학교 2호관 공과대학

제로 홍익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항상 공부하는 사람 안당 임영배 교수는 전남대학교 재직 기간 동안에 건축이론과 한국건축사에 관하여 80여 편의 논문 발표와 수많은 학부과정의 제자, 11명의 박사, 30명의 석사를 배출한 성과를 인정받아 1987년 대한건축학회 학술상과 1992년 금호문화학술상을 수여 받았다.

1986년과 1994년 교육부장관의 교육공로상을 수상한 임영배 교수는 매사에 애매한 양비론을 경계 하였으며, 오로지 옳은 선비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단호하고 엄정함, 온화함을 갖춘 호남건축학계의 명쾌한 큰 어른이었다.

안당 임영배 !!

1970년대 광주건축의 한 획을 그은 건축사로서, 수많은 이의 가슴에 남아있는 건축에 관한 스승으로서 임영배 교수는 2010년 '자랑스런 광주 건축인'으로 선정되었다.

활발한 근대 건축 다수의 작품 활동 등



젊은 시절의 故임영배 교수

일본에서 수학한 김한섭 교수의 작업을 도우며 근대건축의 원리를 터득하게 된 안당 임영배 교수는 총장료 용아빌딩을 설계하던 당시에 조적조가 아닌 라멘조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1960년대 후반 광주의 1세기 건축 붐이 한창일 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첫 작품인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을 독일의 바우하우스 교사(校舍)를 모티브로 설계



신고전주의적 양식으로 설계한 전남대학교 대강당



故임영배 교수 정년퇴임식

<p>알림</p> <p>건축문화 사랑 에서 구독신청을 받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독료 : 20,000원 • 구독료 입금 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p>건축문화 사랑 에서 광고주를 모집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광고 : 1,500,000원 • 하단광고 : 500,000원 • 하단1/2광고 : 300,000원 • 하단1/3광고 : 200,000원 	<p>건축문화 사랑 광고신청 및 구독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Tel. 062)521-0025~6 Fax. 062)528-0026
--	---	---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서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신정철 전남회장 김강수 전북회장 이성범
편집인: 박홍근
편집위원: 박승근
이순미, 서재형, 정태호, 신영은, 박신남, 정영환, 장성호, 송명옥, 김기영, 정영범, 정관성, 박종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배적품 | 새날소방 50만원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50만원
삼성전자(주) 300만원

표 / 지 / 설 / 명

건축문화사랑의 첫 돌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까지 발행된 신문표지들을 발행 순으로 나열한 것이며, 1년 전 발행되었던 신문들을 차례, 차례 회상하여 뒤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준비하자는 의도로 디자인 되었다.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jk@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대한민국 건축사! 이제는 광주를 향해!

'2010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경기도 일산에서 개최 2012년 차기대회 광주광역시에서 개최 확정



전국 1만여 명이 넘는 건축사들이 2010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열리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모였다. 본 행사와 동시행사를 포함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는 대

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경기도·고양시·경기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축학회 등이 후원하였으며 녹색도시를 창조하는 건축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녹색성상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에 맞춰 친환경건축설계 관련 각종 연구교육 및 특별강연회 등 다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한국건축문화대상, 전국 건축사 미술전, 해외 진출 건축 작품전,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후원 바자회 등 전시 및 기타행사도 열렸다.



차기 대회를 전달받은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



광주광역시 김운태 시장의 차기대회 유치 축사 영상



2010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본 대회 개최식



본 대회에 참석한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

22일, 본 대회에서 2012 개최지 선포식 가져

2010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본 대회가 22일 킨텍스 3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인제 위원 등 각 계각층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은 공공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개성없는 성냥갑 빌딩과 천편일률적인 건축물들로 도시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려웠다"며 "앞으로 건축사들이 훌륭한 건축물로 도시의 이미지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줄 수 있

도록 건축 설계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와 주제영상 상영, 명예회원증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폐회에 앞서 2012 개최지 대회기 전달식이 거행되었다.

경기도건축사회 백승천 회장으로부터 대회기를 전달받은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진 회장이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에게 2012 대회기를 전달하였으며 이어 광주광역시 김운태 시장의 차기대회 유치 축사 영상물이 상영되었다.

신정철 회장은 "임기동안 차기대회를 완벽히 준비토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제6회 대한건축사연합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지난 10월 8일, 9일 양일간 경기도 남양주시 공설운동장과 팔당구장에서 열린 제6회 대한건축사 연합회장기 전국 건축사 축구대회에서 경기A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가 주최하고 송파건축사회 및 송파건축사 축구동호회

주관하여 전국시도 300여명 19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경기A팀이 예선 2승 1무로 8강에 올라 대전을 제압하고, 4강전에서 부산갈매기를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또한 3승 1패로 조1위로 예선을 통과한 강남팀은 광주빛고을팀을 8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기고 4강전에서 전북까지 제압하고 경기A팀과 결승에서 맞붙었으나 1:0으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는 페어플레이상과 정광민 건축사가 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대한건축사 축구연합회는 내년 5월경에 충북건축사회 축구동호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건축사회, 제1기 건축사아카데미 6차 강좌 진행



강좌는 건축사사무소 시간의 박우진 건축사의 '현상업무 진행 관련 이론과 실무'라는 주제로 열렸다. 공개강좌로 열린 이날 강좌는 광주건

광주 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에 광주 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기 건축사아카데미 6차 강좌를 진행하였다. 이날 열린 제6차

건축사회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현상업무 관련 강연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박우진 건축사는 "현상업무와 관련한 이론 및 실무에 대해 저보다 뛰어난 건축사님들 앞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 저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11월과 12월 초 강연은 11월 11일 15시에 비엠아이에스 윤두영 소장의 7차 강좌와 11월 25일 15시에 조선대 조용준 교수의 8차 강좌, 동일 16시 30분에 현대건설 김광재 소장의 9차 강좌, 12월 2일 15시에 전남대 오세규 교수의 10차 강좌, 16시 30분에 목포대 황해주 교수의 11차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에이엠지그룹은 전문화된 기술력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과 시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축설계 및 관리

다양한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High-Tech 설계, 친환경설계, 디지털 디자인을 특화된 분야의 팀을 구성하여 건축주에게 보다 전문화된 디자인과 기술을 제공 합니다.

■실내디자인

주어진 공간에 부합하는 감각적이고 친환경적인 디자인으로 장식하여 고객들의 시공.

■시설물유지관리 및 내진보강설계 및 시공

건축물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내진보강의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친환경 세움의 혁신적인 사용과 세계적인 물질관리로 건축물의 고품질을 실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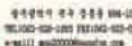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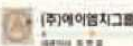
유일한그린스쿨빌딩 (내진보강공사사례)

■탄소섬유 및 탄소판 보강자재 설계 및 시공

- 기존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제치 건축물을 밀기 하지 않고 고강도 탄소섬유 공법으로 적용하여 시공합니다.
- 고강도 탄소섬유 공법 및 탄소판을 보의 인장 및 전단부담, 기동, 슬라브, 용액, 초저벽 등에 적용하여 구조 안정성 확보합니다.

*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간격, 도목구조물, 터널, 시어브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 탄소 섬유 및 탄소판)



건축문화사랑 2010-10
TEL: 02-624-0283 FAX: 02-624-0798
www.amg000000.com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길 11 (주)에이엠지 1002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가락로 11길 11 (주)에이엠지 1002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11길 11 (주)에이엠지 1002호

● 수필

행복의 경제학

강선영 주부
경기도 남양주시

얼마 전 행복 전도사로 칭송받던 여류 명사가 지병의 고통에 승복하며 남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버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일견 죄송한 말 씀이지만 사실 나는 부고 기사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 분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출판업에 종사하면서도 그분이 출간한 수많은 행복서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TV 아침방송의 출연 장면을 잠깐 본 적은 있으나 이내 채널을 돌렸던 기억이 있는 걸 보면 아마도 그분의 말에 그리 큰 공감은 하지 못했던 듯하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그 분이 그토록 전도했던 '행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송구한 부의로 전해야 할까.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사숙고하지 않는 듯하다. 그저 막연히 타인에 의해, 또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실제 불분명한 행복이라는 추를 올려놓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 아니다.'를 가능하며 끝없는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불행한 환경을 극복해내는 방법

내게도 개인적으로 불행했다고 생각되는 시기가 있다. 그 시절이 너무도 지리멸렬했기에 거기에서 빠져 나오자 나는 왜 불행한지, 행복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리해 본 적이 있다. 그 시절 내게 '행복'의 단초를 제공해 준 것은 <어린왕자>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작품들이었다. <인간의 대지>, <아간비행> 등을 읽으며 전쟁과 같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인간의 조건에 공감하며 내가 처한 불행한 환경을 극복해 내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행복이란 소비재가 아니라 생산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행복의 기성품을 소비함으로써, 만들어진 행복을 구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내가 직접 가치를 부여하며 생산해 내는 신선한 행복은 나 자신은 물론이요, 타인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든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본질 아닐까.

내 자신이 내 삶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내 삶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에게나 삶은 전정과도 같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열악한 삶의 제반 조건 아래 처한 우리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자꾸만 다른 데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 어떤 핑계나 변명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런 핑계나 변명은 내가 불행한 이유를 한층 더 강화할 뿐이다. 핑계나 변명은 불행이 기대는 든든한 언덕이며, 소비재로서의 행복이 갖는 고질적 습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생산하는 행복은 그렇지 않다. 스스로 창조하는 행복의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스스로에 대한 나의 가치와 신뢰가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내 삶의 당위성을 높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여타의 핑계나 변명 없이, 내 삶이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나를 신뢰하는 것이라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행복한 생의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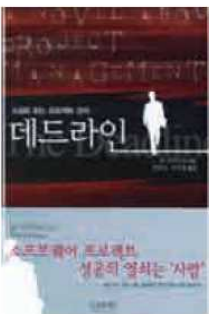
Book



소설로 읽는 프로젝트 관리 데드라인

글쓴이 : 톰 디마르코 옮긴이 : 김덕규, 류미경 펴낸곳 : 인사이트

박지영 대리
(주)건축사사무소 제이원



서른 살이 넘어서 알게 된 소통하는 경계가 비슷한 친구가 추천해준 책 한권이 「소설로 읽는 프로젝트 관리 : 데드라인」이다. 아마도 소프트웨어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꽤 관심은 책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특히 프로젝트 관리자의 입장에서 말이다.

이 책의 주인공의 등장은 조금 황당한 배경들을 지니고 있으며 그 점은 양해해주길 바란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톰킨스는 정리하고 된 후 납치되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모로비아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이다.

아주 우수한 두뇌를 지니고있지는 않지만 그의 주변에는 각 분야에 있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인재들이 존재한다.

간단히 소개하면 락사는 톰킨스를 모로비아로 납치하여 프로젝트의 관리자로 앉히게 되는 여인, 그의 특징은 도움이 필요한 그녀가 생각해서 꼭 필요할 만한 인물은 소위 잡드는 악을 통해 납치를 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금 황당한 그녀의 존재이지만 톰킨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벨록, 그녀는 톰킨스와 함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또 하나의 여인, 항상 맨발로 다니며 달빛 아래 수영을 즐기는 왕년에는 꽤 잘 나갔던 프로젝트 관리자이다. 마르크브 장군, 장군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대비하며 톰킨스를 돕는다.

NNL 모로비아의 군주 주식거래를 통해 모로비아를 사들인 영동하면서도 톰킨스에 대한 자신의 신임을 힘껏 보내주는 통치자이다. 벨록, NNL이 부재 시에 그를 대신해 통치하는 독재자. 이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개발 프로젝트를 짧은 기간 내에 효율적이며 현명하게 대처하는 내용들로 소개된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코딩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진위가 밝혀지는 것이 아니며 완벽한 설계를 시작함이 그 첫 번째 단계임을 보여준다.

톰킨스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기위해 각 해당하는 것에 세 팀으로 나누어 팀별로 다른 일의 배경을 주고 어느 팀에서 더 효율적인지를 알아본다.

여차구니 없이 마감 기한을 앞당겨 버린 벨록 장군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서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소위 기적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는데, 완벽한 설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완벽한 설계는 중간에 검사를 통해 오류들을 줄이는 것으로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인다.

몇몇 브레인들의 집중적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모든 경우의 수를 통해 완벽에 가까운 설계를 한 다음 그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검사를 통해 단기간에 많은 수를 통원하여 완결짓는다. 이것이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또한 우리 시대 많은 이들은 노동청이 정해놓은 노동시간의 몇 배를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레아만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정사실화 하며 야근에 철야를 해내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압박을 통한 프로젝트 관리는 오히려 두배 세배의 시간을 더 소요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관리는 시간, 일하는 사람, 프로그램, 배경, 관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저명한 지식인들의 코멘트 등 모든 것을 아우르며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관리자는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도 현명하며 주변의 전문가들을 자신의 편에서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적합하다.

이 책은 소설이지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다. 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자, 그를 지휘하는 자, 그를 따르는 자, 프로젝트의 처음, 중간, 마무리 그리고 일상 속에서 쉽게 놓치고 가버릴 소소한 사건과 오부제들.에 대한 그리고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으로 한번이 아닌 평생 두고 몇 년을 사이에 두고 계속해서 읽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가오는 깨우침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며 이 책을 추천해보고자 한다.

건축사 Gallery



52x45cm 유화

연방죽
진흙탕 속에서도
고결한 자태를 드러내는
연꽃의 아름다움

차은영 건축사 작

Photo



무등산의 여명

새벽 무등산의 여명이 시작된다.
산너머에 이런 평온함이 있다는 것을 알까
그 산너머에는 굽이굽이 돌아 나의 고향이 있음을 알지만
오늘도 그 산 아래에서 하루의 일상이 시작된다.

가을날 무등산 여명 박종호 건축사 기자

꿈은 혼자서 꾸다면 단지 꿈으로 끝난다. 그러나 모든, 아니 많은 건축인이 함께 꿈을 꾸다면 이는 현실이 될 것이다.

우리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비전을 만들고 공유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신문을 통한 소통과 학습의 장을 갖는 것이다. 이는 시민과 건축인, 건축 관계인과 건축인, 건축인과 건축인이 서로 통(通)하는 연결 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하지 1년이 되었다. 잘 견뎌다. 감사하다.

앞으로 1년은 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약해지지 말자. 한번 또 해보자. 지금까지 잘 했으니...

박흥근 발행인

사랑이가 태어난 후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였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 1년 동안 여러 분야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으면서 건강히 잘 자라왔다. 아직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으나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있는 한 튼튼히 잘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랑이를 돌보는 우리 편집위원들 또한 항상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재미있게 일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또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

이순미 건축사 기자

달거리를 한다?

1년 전! 6개월여의 모진 신고 끝에 건축문화사랑이라는 건축인의 신문을 '날았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건축쟁이가 신문을 발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에, 힘겨운 취재와 편집 그리고 회의가 달마다 반복되었다. 그러다가도 신문이 발행되고, 독자들의 격려를 받게 되면, 가슴이 뿌듯해졌다. 그렇게 건축문화사랑은 힘겨우면서도 행복한 달거리를 하게한다.

서재형 건축사 기자

건축문화 사랑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지 1년을 넘겼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용기 하나로 겁 없이 시작했던 것 같다.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의외로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축이 그렇고 신문 만들기도 그러한 것 같다. 신문을 만들면서 시간에 쫓겨 한 숨 쉬어 본 적도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은 신문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한 적도 많았던 것 같다. 부끄럽지 않을, 누군가에게 좋은 읽을거리가 되는 신문을 만들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편집위원들이다. 그렇지만 마음과는 달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

힘들다면 힘들었던 편집위원 일이지만,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았다. 열심히 생활하시는 편집위원들은 삶의 자양분이 되었고, 신문을 보며 응원해 주신 독자들의 갈채와 독려는 나태해지려는 우리를 깨워주었다.

신영은 건축사 기자

작년 이맘때쯤 건축문화사랑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 느꼈던 설레임과 전율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벌써 1주년이 되었다. 지나가는 시간이 늘 아쉽듯 매달 원고 마감 후엔 시험함 보다 섭섭함이 많았던 것 같다. 키워드 하나를 뽑기 위해 수 십 번 읽어야 했었고, 틈틈이 작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편집했던 일들이 힘들기도 하였지만 즐겁고 재미있는 작업이었다.

앞으로는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주고 사랑 받는 신문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다.

모두가 어려운 작업에 넉넉하고 훈훈한 마음을 담아 건축문화사랑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의 메시지를 보낸다.

박산남 건축사 기자

길을 걷고 있다. 자욱한 안개때문인지 돌아온 길도 가야 할 길도 알 수가 없다. 가던길을 멈추고 상념(想念)에 잠긴다. 이럴때는 잠시 쉬어가는게 상책이리라.

정형화된 틀을 깨고자 시작하였으나 현재의 나는 정형화된 틀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낀다.

오늘 새롭게 내 믿는 발걸음은 새롭게 시작하는 디딤발이 되리라.

박종호 건축사 기자

이상과 현실.....

그 속에서 고민하는 자아를 발견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될

대중에게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큰 테제는 짧은 시간과 열정하나만으로는 채우고 이를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다.

그 아름다운 목표를 희망으로.. 우리의 열정과 함께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다보면 그토록 바라던 이상은 점점 우리곁에 현실로 다가올거라 믿어본다.

정영범 건축사 기자

그리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1년의 나날들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틈바구니 시간속에서도 건축문화사랑은 건축문화의 큰 꽃잎을 펼쳤습니다.

이 같은 결실은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선배님들의 관심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성 건축사 기자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건축인들의 영역에 '건축문화 사랑' 신문발행은 건축인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평소 시간부족을 이유로 문화활동에 참가하지 못하였지만 건축인들이 직접참여 하면서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기록문화에 인식했던 우리들에게 한창의 지면은 의미가 되고 쌓이되어 지역건축문화로 성장하리라 본다. 세상을 보는 눈이되고 발이되어 그동안 담아 내지 못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짚고 전달하고싶다.

김기범 건축사 기자

발행의 꿈을 잡고...

1년간 '건축문화사랑'이라는 신문을 편집위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왔다. 건축에 대한 아무 지식조차 없던 나로서는 정말 어렵고도, 멀고도, 힘든 일이었다.

누가 나에게 물었다 "재미있나?" 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답했을 뿐인데 서글퍼 왔다.

그렇다. 서글프다. 앞으로의 일이 캄캄하다. 하지만 그 서글픔 속에 기쁨 또한 있었다. 내에게는 '건축문화사랑 발행'이라는 희열이 있었다. 매호마다 힘들고 지치지만 발행일에 직접 내 손아귀에 느껴지는 '첫 신문의 따듯함'이 있었다.

지금까지 11번의 그 따듯함을 느껴왔다. 앞으로 도 나는 그 따듯함을 느끼기 위해 언제나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곽승국 전담기자

건축이라는 전문 영역의 여러 소식을 대중에게 소개하며 작은 소식지에서 시작된 건축문화사랑(이하 건문사). 그리고 건문사의 방향설정을 의논하기까지의 1년. 소식지로서의 성격을 구축하고 뒤를 돌아 볼 수 있는 짧지 않은 기간이었다.

발간 1년을 맞아 열린 건문사 좌담회에서는 건문사에 바라는 점과 소식지에서 신문으로의 행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신문은 다수의 공익을 위해 존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위에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대학기자로 있는 기간동안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건문사가 되었으면 한다.

이수정 학생기자

건축문화사랑이 벌써 1주년이 되었네요. 저는 함께한지 일년이 되지 않았지만 많은 정보와 소식 등 얻는것도 많았으며 또한 너무 형식적인 소식만 전해 드렸던 것 같아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건축문화사랑이 만들어지는 과정속에서 건축인들의 꿈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훈희 학생기자

우리는 '건축문화사랑'이라는 애인과 1년을 함께 해 왔다.

발간사와 촉사가 이어졌던 창간호를 꺼내어 보자. 그러면 설레임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보이는 것 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물질 보다는 사람에 더 관심이 기울이며 '2년차 징크스'를 담담히 기다려 보자. 3년차를 내다보는 내년 이 즈음에는 '그 것 또한 곧 지나갔다.' 라며 씩씩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과 사람으로 귀결된다.

서민석 학생기자

어느덧, '건축문화 사랑'의 대학기자로 1년간 활동을 해오고 있다. 솔직히 그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아주 감동적인 일이 있었다. 바로 나의 첫 기사가 신문에 기재 된 후 한통의 메일을 받았을 때이다.

대학의 선배님이 신문의 학교소식을 보고 보내온 격려의 메일이었다. 지금 현직의 건축인들에게 전하게 되는 모교의 소식이라는 것에 대해 뭔가 모를 자긍심이 느껴졌다. 1년이 되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 학생기자의 자부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져본다.

이슬기 학생기자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획득
기술혁신 중소기업 (INNO-BIZ) 인증
벤처기업 등록

www.bs-base.co.kr

탄탄하고 경제적인 기초공사 - 반석기초이앤씨(주)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팽이기초공법 (6연식형 / 현장타설형)

팽이기초공법
6연식



동신고 체육관

팽이기초공법
현장타설형



잠신 중학교



군산인력개발원



전남대 학군단



105 포병대대



서정동 주민센터

마이크로파일 공법



장성 문화예술회관



연천초

그라우팅 공법



반석기초이앤씨(주) 대표이사 문 형 록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87-1 아이비타워 108호 TEL. 031) 577-1673 FAX. 031) 577-1674